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顧頡剛의 ‘救國’과 古史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홍 은 혜

顧頡剛의 ‘救國’과 古史 연구

지도교수 김 병 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홍 은 혜

홍은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顧頡剛은 20세기 중국의 疑古學派를 대표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힐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세간에서도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도 종종 많은 오해가 있어 왔다. 지금까지 고힐강에 대한 연구는 중국고대사 분야에 종사했던 역사학자 고힐강의 학문 연구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현대사적 시각에서 5·4시기에 등장하여 활동한 지식인의 하나로서 고힐강의 활동 내용을 대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고힐강을 ‘純粹 학자’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그를 의고학파의 거두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동시에 ‘賣國奴’라고 그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순수 학자’라는 평가와는 또 정반대로 고힐강의 현실 참여적인 모습을 두고서 그를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생의 많은 부분을 고대사 연구에 할애했던 學人으로서의 고힐강의 모습과 ‘國亡’의 시기를 살았던 지식인으로서 현실 참여에 대한 의지를 지녔던 고힐강의 모습, 양자 사이는 과연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고힐강에게 있어 양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단절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고힐강의 실제 古史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고힐강의 현실 참여와 그의 古史 연구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힐강은 일반적으로 ‘순수 학자’로서의 면모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힐강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학문에만 몰두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고힐강은 1920년대부터 1930~4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식인으로서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민족의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救

國’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구국’이란 정치적 활동이 아닌 학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그가 ‘구국’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인물로 곧바로 등치되어 이해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顧頡剛日記』 등을 통해 그 자신의 발언을 살펴본 결과, 고힐강에게 있어 ‘구국’이란 다른 아님 학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고힐강의 ‘구국’ 활동이 곧 그의 학술 활동이었다면, 어떻게 고힐강의 학문 연구가 ‘구국’을 위한 활동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고힐강은 理性의 힘으로써, 즉 啓蒙을 수단으로 삼아 非理性이 지배하던 당시 중국을 救濟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고힐강에게 있어 이성의 추구를 통한 계몽의 확장이 곧 ‘구국’이었다.

이어서 본고에서는 1920년대와 1930~40년대 고힐강의 면모를 가르는 주요 변곡점이 되는 사례로 자주 들어지는 『禹貢』 잡지를 첫 번째 사례로 삼아 실제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힐강의 현실 참여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사례로 지적된 바 있는 『禹貢』 잡지의 편집 때문에, 고힐강은 그간 ‘민족주의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처음에 ‘구국’의 필요성을 느끼고 『禹貢』을 창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이고 세밀한 고증 위주의 경향은 『禹貢』 잡지 안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었다. 한편 고힐강이 편찬한 『現代初中敎科書本國史』의 사례 역시도 고힐강이 학술 서적이 아닌 대중 서적을 폐냈다는 점에서 그를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들어져 왔다. 하지만 고힐강은 시종일관 과거에 중국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가 살던 당시의 중국과 과거 사실 양자 간에는 철저히 구분 지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학문적 신념은 결국 三皇五帝를 중국의 ‘傳說’ 시대로 규정하는 기준과는 상이한 교과서 서술로 이어졌고, 삼황

오제를 민족 단결의 구호로 삼으려는 당시 南京 국민정부의 입장과 충돌함에 따라서 그가 편찬한 교과서는 전면 출판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고힐강에 벼금갈 정도의 ‘순수 학자’에 속하는 傅斯年이 일본의 침략이라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국 정치에 영합했던 것과는 달리, 고힐강은 중국 민족의 同一起源說을 부정하고 역사상 중국 강역의 유동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입장 을 끝까지 유지했다. 이처럼 고힐강은 단순히 애국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인 인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정확한 사실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야말로 ‘구국’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었다.

다음으로는 ‘순수 학자’ 고힐강의 모습을 무엇보다 잘 드러내 주는 『尙書』 연구를 두 번째 사례로 삼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尙書』는 1920년대부터 고힐강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속적으로 천착했던 연구로서, 고힐강이 중국 고대 경전이 갖고 있던 권위를 타파하고 上古 시대의 真相을 드러내기 위해 택했던 중요한 사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고힐강과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은 첫 번째 비판인 1926년 그가 『古史辨』을 편찬했을 당시뿐 아니라, 1950년대 胡適 비판의 시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信古派’에 의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차례나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 세 차례의 고힐강 비판의 시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고힐강을 ‘반민족적’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는 셋 다 모두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고힐강에 대한 비판과 오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信古’파에 의해 ‘疑古’파라는 오해 또한 근래 들어서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고’와 ‘신고’ 양자가 각각 『尙書』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西周 시기부터 시작되는 역사 기록이 담긴 『尙書·周書』篇, 그중에서도 清華簡에 들어 있는 『今文尙書』의 내용 중 일부와 동일한 「金縢」篇을 주요 사례로서 살펴보았다. 고힐강의 ‘의고’파와 李學勤의 ‘신고’파가 내린 결론

은 모두 「金縢」篇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양자가 사용한 논거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신고’파의 주장에는 일부 문제가 존재하는데, 우선 ‘의고’파가 『僞孔傳』 등의 古書를 아예 폐기해버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출토 문헌인 간독 자료 역시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冊’이었다는 점에서 편찬과 유통 과정에서의 복잡성 문제가 존재한다.

결국 『尚書』에 대한 兩派의 해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듯이, ‘의고’와 ‘신고’파의 논쟁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 논점의 본질이 가려졌을 뿐, 양자가 사용한 방법상에는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고힐강의 『禹貢』 편집과 『尚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고힐강의 古史 연구와 그의 ‘구국’ 양자 간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출토 문헌 범람으로 인해 ‘신고’파가 점점 우세해지는 현재 중국사학계의 경향 속에서 고힐강의 ‘의고’의 방법은 여전히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주요어 : 고힐강, 구국, 『우공』, 『상서』, 의고, 신고

학 번 : 2019-22938

목 차

머리말	1
1. 顧頡剛의 현실 참여와 ‘救國’의 의미	7
2. 학술잡지 『禹貢』의 편집과 ‘救國’	18
3. 『尙書』 연구와 ‘救國’	37
1) ‘國粹主義’와 ‘信古’派의 비판	37
2) ‘疑古’에 대한 오해	42
맺음말	56
부록	59
참고문헌	65
中文摘要	71

머리말

顧頡剛(1893~1980)은 일반적으로 梁啟超, 胡適 등 ‘학술과 정치 사이’에 있던 학자들과는 달리 ‘純粹 학자’로 평가되곤 한다.¹⁾ 실제로 고힐강은 20세기 초 중국의 역사학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불러일으킨 疑古²⁾學派의 거두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古史辨』의 출간과 함께 고힐강 疑古史學이 일대를 풍미했던 1920년대로부터 이미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까지 고힐강에 대한 연구는 중국고대사 분야에 종사했던 역사학자 고힐강의 학문 연구를 대상으로 삼거나,³⁾ 5·4시기에 등장하여 활동한 지식인의 하나로서 고힐강의 활동 내용을 대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
- 1) ‘순수 학자’는 李石岑이 1924년 吳稚暉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다. 李石岑은 학문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관의 관계를 세 부류로 나누어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 ① 生活을 위해 學問을 하는 인생 태도 - 個人의 眞을 구하는 것 - 個人生活 ② 功利를 위해 學問을 하는 인생 태도 - 社會의 善을 구하는 것 - 社會生活 ③ 學問을 위해 學問을 하는 인생 태도 - 宇宙의 美를 구하는 것 - 宇宙生活(『李石岑講演集』, p.13 참조). 그리고 이 틀에 맞추어 동시대 중국의 학자들을 분류해 놓았다. 李石岑은 결론적으로 “학문을 하나의 종신의 사업으로 삼아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 나라의 현실에 적합하다”(pp.17-18)고 주장한다. 그는 고힐강을 가리켜 “학문을 위해 학문을 하는 학자”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고힐강을 ‘순수 학자’라고 보는 기존의 연구들로는 許冠三, 『新史學九十年』, 1986; 小倉芳彦, 「顧頡剛と日本」, 『理想』 464號, 1972 등이 있다.
 - 2) ‘疑古’는 중국에서 매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초기의 의고는 단지 古書 중의 일부 기록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켰다. 1920년대에 시작된 고힐강을 필두로 하는 ‘古史辨派’가 일으킨 疑古思潮는 전근대 시기 宋·清의 의고사조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사조이다. 의고에서의 ‘古’는 옛것, 즉 고대사 혹은 고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고란 옛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의심해 본다는 이른바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뜻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疑古’와 ‘信古’ 논쟁에서의 ‘의고’는 단순히 사료 비판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학파를 대표하는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 ‘의고’와 대비되는 ‘신고’와의 논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제3장을 참조.
 - 3) 顧頡剛 著, 김병준 譯, 『고사변 자서: 의고학파의 거두 고힐강의 자전적 서문』, 소명출판, 2006; 李有鎮, 「전통과 반전통의 관점에서 바라본 顧頡剛의 신화관」, 『중국어문학논집』 36, 2006; 劉俐娜, 『顧頡剛學術思想評傳』, 北京圖書館出版社, 1999; 吳銳, 「禹是一條蟲”再研究」, 『文史哲』 6, 2007; 馬竹君, 「顧頡剛“層累說”的再審視: 以大禹傳說研究為中心」, 『民俗研究』 3, 2018; 竹元規人, 「顧頡剛の尙書研究(1)」, 『福岡教育大學紀要』 65, 2016 등이 있다.

그런데 고힐강을 ‘순수 학자’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그를 의고학파의 거두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동시에 ‘賣國奴’라고 그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고힐강과 동시대를 살았던 傅斯年, 柳詒徵 등이 고힐강에 대해 가했던 비판뿐 아니라, 고힐강 사후에 李學勤 등의 ‘信古派’가 그를 가리켜 한 비판과도 동일하다. 즉, 고힐강은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중화민족으로서 하나인 중국을 외부에 팔아넘기려고 한 자라는 것이다.⁴⁾

한편 위와 같이 ‘순수 학자’라는 평가와는 또 정반대로 고힐강의 현실 참여적인 모습을 두고서 그를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⁵⁾ 실제로 고힐강은 정치적 자각 의식으로 인해 때로 야심만만한 ‘學闇’로, 또는政界에 뜻이 있는 ‘政客’으로 종종 오해받곤 했다.⁶⁾ 하지만 무엇보다 고

4) 『顧頡剛日記』第2卷(上), “玄同先生告我，幼漁先生對他說，「你如何與顧頡剛往還，他這樣的性情，同魯迅鬧翻了，同林玉堂鬧翻了，同傅孟眞也鬧翻了！」……像我現在這樣，沒有一些權勢，只關門讀書，或者他們可以放過我了吧？（孟眞來平之後，大約很講些我的壞話，所以幼漁先生們都知道。）我自誓於此：如果燕大不辭掉我，我決不再進國立的機關做事了，我寧可受「洋奴」的惡名。我還是圖百年以後的勝利吧！”（1929. 12. 3.）；“比有某君謂古無夏禹其人；諸書所言之禹皆屬子虛烏有。叩其所據，則以『說文』釋‘禹’爲蟲而不指爲夏代先王，因疑禹爲九鼎所圖之怪物，初非圓顱方趾之人。”（柳詒徵，「論以說文證史必先知說文之誼例」，『顧頡剛古史論文集』卷1，中華書局，2011，p.326）；廖名春，「出土文獻與中國文學研究筆談」，『中州學刊』2, 2000.

5) 이때 ‘민족주의’란 용어는 기존 연구들에서 고힐강에 대해 비판할 때 주로 동원된 용어로서, 지금껏 그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민족주의’에도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저자들마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거나, 특화된 형태의 ‘민족주의’ 개념을 가지고서 고힐강을 평가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본고에서 고힐강에 대해 ‘민족주의’ 또는 ‘반민족주의’라고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은 모두 필자의 주장이 그러함을 나타내는 바가 아닌, 기존 연구에서의 고힐강 비판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기 위해 가져다가 쓴 표현임을 밝혀둔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고힐강을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할 때도 그 충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힐강의 1930~40년대 활동을 애국주의적이라고 칭양하는 중국 대륙 측의 연구, 두 번째는 고힐강의 邊疆 연구를 국가중심적, 한족중심주의적이라며 매우 ‘민족주의적’이라고 뚝뚱그려 해석한 박장배의 연구, 세 번째는 고힐강이 최종적으로 규정한 中華民族은 ‘국가민족주의(state-nationalism)적’이라고 본 하주형의 연구가 그것이다(구체적인 서지사항은 하단의 각주 7번을 참조). 하지만 본고에서는 특정 연구에 대해 따로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 이러한 기존 연구를 지칭할 때는 편의상 ‘민족주의’라는 범용적인 용어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6) 예를 들어 『顧頡剛日記』第2卷(下), p.701, “肖甫來，告予外有流言，謂北平史學會爲予所發起，且拉攏北大學生不少，若予欲在北平學界活動者。眞可笑。吾誠能讀書治學，此樂南面王不易，何苦作學闇以自失其快樂乎！語云，「猛虎在深山，百

힐강이 1930~40년대 항일전쟁 시기에 별인 활동들에 대해 그를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하거나 상찬하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⁷⁾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모두 고힐강의 실제 연구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일본의 침략이라고 하는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 당시 중국 역사학의 큰 흐름이었던 애국주의 경향으로 뭉뚱그려 해석한다거나,⁸⁾ 고힐강 역시도 ‘國亡’의 시기에 西北 지역 고찰을 떠나는 등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식의 피상적인 이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⁹⁾

그러나 일생의 많은 부분을 고대사 연구에 할애했던 學人으로서의 고힐강의 모습과 ‘국망’의 시기를 살았던 지식인으로서 현실 참여에의 의지를 가졌던 고힐강의 모습, 양자 사이는 과연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獸震驚.」造謠者太闊葺無能，乃視予若猛虎。”(1932. 10. 23.); 『顧頡剛日記』第3卷, p.182, “燠蓮告我，牟潤孫在城內大罵我，謂我「野心太大，想做學閥，是一政客」。噫，看我太淺者謂我是書呆，看我過深者謂我是政客。某蓋處於材不材之間，似是而非也。”(1934. 4. 26.); 『顧頡剛日記』第5卷(上), p.58, “聞胡煥庸對學生說，「伍叔儻係政客，顧頡剛係學閥」。甚望胡君所言不虛，使我真能成學術界之重鎮也。”(1943. 4. 14.)

- 7) 1930년대 항일전쟁 시기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대응으로서 고힐강이 펴낸 역사지리학 잡지 『禹貢』을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적이라고 칭양하는 기존의 연구들로는 중국 대륙의 연구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徐彬, 「“疑古”和“考信”的史學大師顧頡剛」, 『歷史教學』 11, 1999; 徐象平, 「『禹貢半月刊』的編輯特色」, 『陝西師大學報』 24, 1995; 劉緯毅, 「歷史不會忘記——顧頡剛先生創辦的禹貢學會和禹貢半月刊」, 『滄桑』 3, 2002; 許冠三, 『新史學九十年』, 1986. pp.182-204; 馬大正, 「略論禹貢學會的學術組織工作」, 『中國邊疆史地研究』 1, 1992 등이 있다. 이 밖에도 『禹貢』이 정간된 후 고힐강이 별인 활동들을 단순히 ‘구국’을 위한 항일 활동의 하나로만 보는 시각으로는 李得賢, 「顧頡剛先生與西北」, 『青海社會科學』 3, 1982; 吳豐培, 「顧頡剛先生和所著‘西北考察日記’」, 『西北史地』 4, 1983; 汪受寬, 「以救國自任的顧頡剛甘肅之行」, 『西北史地』 1, 1994; 劉俐娜, 「從‘上游集’看抗戰時期顧頡剛的學術活動及思想」, 『抗日戰爭研究』 3, 2006; 小倉芳彦, 「顧頡剛と日本」, 『理想』 464號, 1972; 上同, 「抗日戰下の顧頡剛—『西北考察日記』を手にして」, 『思想』 681號, 1981 등이 있다. 한편 고힐강과 『禹貢』을 ‘민족주의적’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러한 기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로는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장배, 「1930년대 顧頡剛의 역사지리 인식과 변경학 연구」, 『中國近現代史研究』 76, 2017; Schneider의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1971 등이 있다. Schneider의 경우 고힐강이 ‘민족주의적’ 맥락에서 新史學을 창출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Schneider,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1971, pp.53-120).
- 8)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p.38.
- 9) Schneider,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1971, p.274.

것일까? Michael Gasster는 “때때로 모든 전통을 완벽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혁명 분자는 진정한 혁명 분자가 될 수 없다. 재능이 탁월하고 전통을 지키는 혁명 분자만이 성공적인 혁명 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¹⁰⁾ 한 인물을 평면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할 때 고힐강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은 ‘순수 학자’ 또는 ‘민족주의자’로서의 고힐강, 양자의 측면만을 과도하게 부각해 온 면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서로 분리되기 힘들어 보이는 양자의 측면을 연속적으로 바라보는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고힐강에게 있어 양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단절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위와 같은 필자의 문제의식은, 고힐강의 학문 연구와 현실 참여 양자 간에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에서 처음 시사 받은 바가 크다.¹¹⁾ 그러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이와 같은 선구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가 1930~40년대 고힐강의 고대사 연구에 대한 실증적인 고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면, 본고에서는 이 시기 고힐강의 실제 고대사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한편 국내에서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고힐강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외국 학자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고힐강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민족주의자’¹²⁾로서 그가 지난 측면을 유의미하게

-
- 10) Michael Gasster, “Book Review: Modern China’s Search for a Political Form by Jack Gra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29, No.2, 1970, p.435.
 - 11) 김병준, 「고힐강의 삶과 학문세계」,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학 융합사업단 편,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삶과 학문』, 2009, pp.181-184.
 - 12) 하주형은 그의 연구에서 고힐강의 中華民族論은 처음부터 영토 보전을 위해 제시된 담론이었고 이는 그의 救國 의지가 발현된 것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민족 형성의 기준으로 고힐강은 종족적 기준 대신 문화적 기준을 부각시켰으나, 漢族과 非漢族의 문화적 차이가 염존하는 상황에서 고힐강은 다시금 문화적 기준을 불식시킴으로써 그가 규정한 ‘중화민족’은 국가민족, 즉 사실상 國族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여기서 ‘국가민족주의’란 국가권력이 민족의 건설, 민족 정체성의 규정, 민족운동의 전개 등 민족과 관련된 제반 정치·사회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主義(ism)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족의 형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개념이다(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頽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p.58). 하지만 비록 하주형의 연구가 고힐강을 國族 중심 개념의 ‘민족주의자’라고 나름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힐강이 사용했던 ‘中華民族’이라는 용어는 당시 國亡의 상황에 봉착하여 국가라는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별다른 의미 없이 사용했던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실제로 고힐강은 근대국가 개념이 막 생겨나고 있었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학술 안으로 끌어들이고

밝혀낸 바 있는 인물 연구 역시 본 연구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참조한 바 있다.¹³⁾ 하지만 해당 연구가 비록 1930년대 고힐강이 발간한 역사지리학 잡지 『禹貢』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고힐강에 대한 비난 일색의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여전히 1930년대 이후 고힐강의 활동과 그 이전 1920년대 고힐강의 활동 양자를 분리해서 바라보았었다. 이렇듯 현대사적 관점에서 ‘민족주의자’로 고힐강을 비판하는 연구들은 대개 두 시기를 분화시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고힐강의 192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를 ‘순수 학자’로 보는 연구들 역시 양자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에서는 의고학파의 거두로서 고힐강의 모습만을 강조했지, 고힐강의 학술과 그의 ‘救國’의 면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본고에서는 1920년대와 1930~40년대 고힐강의 면모를 가르는 주요 변곡점이 되는 사례로 자주 들어지는 『禹貢』 잡지를 첫 번째 사례로 삼아 실제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처럼 고힐강을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고힐강의 고대사 연구와 현실 활동 양자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신고’파 측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도 과연 정말로 그러할지, ‘반민족주의자’라는 그들의 고힐강에 대한 평가는 과연 정당할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때 고힐강의 학자적인 모습을 무엇보다 잘 드러내 주는 『尙書』 연구를 두 번째 사례로 삼아 분석해 보고자 했다. 『尙書』는 고힐강 ‘辨僞’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서, 『春秋』·『論語』 등 중국 고대의 여러 경전에 관한 연구에 선행하여 그가 경전의 권위를 타파하고 중국의 上古 시대의 真相을 드러내기 위해 택했던 중요한 사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고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에 따른다면, 본문의 제1장에서는 『顧頡剛日記』¹⁴⁾ 등을 통해 ‘救國’의 구체적인 용례는 무엇이며 그

실지 않아 했으며, ‘중화민족’이라는 용어 사용 역시도 어디까지나 과거의 국가와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서술하기 위한 학술적인 목적에 한정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고힐강에게 있어 ‘학술’이 ‘국망’에 항상 앞서 있었다는 사실은 이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13)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14) 顧頡剛, 『顧頡剛日記』(全12冊), 臺灣聯經出版公司, 2007.

것이 그의 *古史* 연구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傅斯年과의 비교 및 『禹貢』의 사례 등을 통해 고힐강이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민족주의자’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고힐강 『尙書』 연구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비판과 그에 대한 고힐강의 대응을 살펴보고, 근 100년간 이어지는 ‘疑古’ 대 ‘信古’ 논쟁에서 고힐강과 그의 ‘의고’의 방법이 근래 ‘신고’파에 의해 어떠한 오해를 받고 있는지를 이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살펴본 고힐강의 현실 참여의식과 그의 실제 연구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서 그의 ‘의고’의 방법이 담긴 『尙書』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본고에서의 작업이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고의 연구가 고힐강에 대한 재평가 내지는 재해석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인물 평가는 평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러지 못했던 고힐강 연구에 대해 본고에서의 연구가 입체적 인물로서의 고힐강의 일생을 규명하고, 만약 그동안 그에게 덧씌워졌던 오해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오해를 벗겨내는 의의 또한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古史辨』이 출간된 지 한 세기도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왜 지금 다시 고힐강인가?”라는 김병준이 초기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도 필자가 이에 더하여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¹⁵⁾

15) 김병준, 「고힐강의 삶과 학문세계」, 2009, pp.199–200.

1. 顧頡剛의 현실 참여와 ‘救國’의 의미

고힐강은 일반적으로 ‘순수 학자’로서의 면모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고힐강은 20세기 초 격랑의 시대에 살면서 국가와 민족의 위급한 상황은 외면한 채 자신의 학문에만 몰두했던 지식인에 불과한 자인가? 이를 알기 위해 1920년대 이후 고힐강의 현실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어린 시절 “격동하는 시대 조류의 영향을 받아 救國의 책임을 느끼고 항상 비분강개하고 격앙되어 時事를 논했던”¹⁶⁾ 고힐강은 中學 시절인 1912년 辛亥革命의 와중에 中國社會黨 蘇州支部에 가입하였다. 사회당에서 활동을 한 1년 반 동안 그는 가장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밤늦도록 잠도 자지 않으면서 업무를 처리했지만, 점차 당원들의 무능함과 조직의 비효율성에 크게 실망하고 나서 탈당하게 된다. 그는 이 시점을 계기로 사회개혁에 대한 입장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정치에 참여하여 세상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학자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개혁의 임무는 마땅히 정치가가 맡아야 하며, 교육가 그리고 사회운동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⁷⁾ 그러나 고힐강 스스로 강조했듯이 “결코 정치와 사회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¹⁸⁾ 가령 그는 1925년 5·30운동 당시 北京大學의 救國團에 가입해 「傷心歌」, 「上海的亂子是怎麼鬧起來的」과 같은 전단지를 작성하였고, 6월 17일에는 『救國特刊』의 발간사를 썼다. 이 발간사에서 고힐강은 일시적인 군중 운동을 영구적인 救國運動으로 변환시켜야 하며 그동안 중국에 누적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또한 1920년 4월 30일 그는 『晨報』 ‘五四紀念號’의 「我們最要緊着手的兩種運動」에서 전국 국민이 모두 교육의 기회를 향유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교육 운동에서 더 나아가 ‘학술 운동’을 통해 세계의 학문으로 중국의 수천 년 묵은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⁰⁾

16) 『古史辨』 第1冊 「自序」 p.12.

17) 『古史辨』 第1冊 「自序」 p.18.

18) 『古史辨』 第1冊 「自序」 p.18.

19) 顧潮 編著, 『顧頡剛年譜』,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pp.110-111.

20) 顧頡剛, 「我們最要緊着手的兩種運動」, 『晨報』, 1920. 4. 30.(顧潮 編著, 『顧頡

그 후 고힐강은 北京大學에 입학하여 胡適을 만나 본격적인 학문 활동에 들어섰다. 그리고 1926년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와 이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비판의 글을 묶어 『古史辨』 제1책을 펴냈다. 이때에도 중국 민족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여전히 강했다. “대단히 노쇠해 있고 멀망할 날을 앞에 둔 중국을 비관해 하며 그냥 망할 때를 기다릴 수 없다.” “내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도록 자극하고, 그리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절실한 이해를 따져서 내부 단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²¹⁾와 같은 언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고힐강의 위기의식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자신의 대부분의 정열을 대중용 책자를 만들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 쏟아부었다. 1933년 4월 ‘楚나라에 세 집만 남아도 秦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는 초나라다’는 말을 빌려 ‘三戶書社’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세우고 대중용 책자를 출판했다. 이 출판사는 9월에 民衆讀物編刊社로 개명했고, 다시 10월에는 通俗讀物編刊社로 이름을 바꾼 뒤 이를 통해 항일을 위한 通俗讀物들을 제작해 유포시켰다.²²⁾ 대중용 글쓰기로 항일의 주장을 적극 선전하면서 전 민족이 결기해 항일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고힐강이 通俗讀物編刊社를 통해 출판한 항일 선전 通俗讀物은 600종, 5천만 부에 달했고 그 스스로도 이 선전 활동의 파급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²³⁾ 비록 출간과정에 일일이 간여한 것은 아니지만, 社長의 자격으로 주요한 정책과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군의 추적을 받게 되어 결국 북경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²⁴⁾ 고힐강은 자신이 출간하는 대중용 책자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신문화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고, 방법적으로는 과거 문화운동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지식인들만이 아닌 대중의 세계로 확대시킨 것이며, 효과 면에서는 직접 대중을 교육시켜 그들을 각성시킨 새로운 도구이고,

剛年譜』, 1993, pp.53-54에서 재인용)

21) 『古史辨』第1冊 「自序」 pp.89-90.

22) 顧潮 編著, 『顧頡剛年譜』, 1993, pp.209-213.

23) 顧頡剛, 「我的事業苦悶」, 『觀察』第3卷 第24期, 1948, p.30. 하지만 아쉽게도 고힐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600종의 通俗讀物들 대부분이 산일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11종에 불과하다(小倉芳彦, 「通俗讀物編刊社の出版物—1930年代の抗日パンフレット11種」, 『調査研究報告』17, 1983, p.67).

24) 顧頡剛 著, 김병준 譯, 「나는 어떻게 ‘고사변’을 편찬했는가?」, 『고사변 자서』, 2006, p.212.

가치 면에서는 중국문학사에 새로운 가치를 올린 것이고, 의의 면에서는 '중국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²⁵⁾

1936년 10월 13일 각계각층의 항일운동이 거세지는 시점에 燕京大學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고힐강은 발기인 자격으로 容庚, 梁士純, 徐炳昶 등과 함께 燕京大學中國敎聯員會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²⁶⁾ 선언 내용에는 나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항일운동에 나설 것과 영토주권 강조가 포함되었다. 9·18 사변 이후 고힐강이 중점을 둔 또 하나는 주변 강국의 영토 침탈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이에 고힐강은 역사지리를 연구하는 학회인 禹貢學會를 창립하게 되는데 이에 관해선 뒷부분에서 자세히 서술할 예정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힐강은 1920년대 그 이전부터 1930~4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일관되게 지식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민족의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救國'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때문에 고힐강을 회고하는 글에서는 종종 지나칠 정도로 그의 애국주의적 행동을 과장하기도 한다.²⁷⁾ 하지만 이것은 1920년대와 그 이후 시기를 단절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연구자들이 고힐강의 '구국' 행위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힐강은 '구국'이라는 말을 20년대부터도 지속적으로 써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고힐강의 정치적 활동은 1920년대부터 그 이후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져 왔음을 살펴보았지만, 그의 현실 참여 모습 중 가장 정치적이라 할만한 것들 역시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세력을 형성하는 일 따위의 행동이 주가 된 것은 아니었다. 고힐강은 앞서 이미 언급한 대로 10대 시절 사회당 활동을 중도에 실망하여 그만두었으며, 1936년 국민당에 정식으로 가입했던 것 역시 禹貢學會의 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커졌다.²⁸⁾ 1943년 3월 中國史學會가 성립하자 고힐강은 常

25) 顧頡剛, 「通俗讀物的歷史使命與創作方法」(邵恒秋, 「顧頡剛創辦通俗讀物編刊社所起作用」, 王煦華 主編, 『顧頡剛先生學行錄』, 中華書局, 2006, p.120에서 재인용).

26) 이 과정과 선언全文은 王振乾, 「顧頡剛先生的西安之行」, 王煦華 主編, 『顧頡剛先生學行錄』, 2006을 참조. 선언문은 본래 『文史資料選編』 第12輯, 北京出版社, 1982에 실렸다.

27) 고힐강의 1930~40년대 활동을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적이라고 칭양하는 기존 연구들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에 관해선 각주 7번을 참조.

28) 余英時, 『未盡的才情: 從‘日記’看顧頡剛的内心世界』, 聯經出版事業股彬有限公司

務理事에 선임되고 商人과의 합작으로 中國史地圖表編纂社 社長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즈음 학계의 명예 다툼과 정계의 권력 다툼에 염증을 느꼈으며 실제 활동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²⁹⁾ 또한 1948년에는 中央研究院 人文組 院士에 당선되었으나 실질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은 아니었다.³⁰⁾

위와 같이 고힐강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치적 활동의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적 활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정확한 ‘구국’의 의미를 알기 위해 고힐강의 발언 중에 ‘구국’이란 단어가 직접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구국’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고힐강의 발언들이다.

- (1) 이러한 격동하는 시대의 조류에 영향을 받아 나 역시 救國의 책임을 느끼고 항상 비분강개하고 격앙되어 時事를 논하였다. …… 이러한 열정에 휩싸인 나는 오로지 온몸을 바쳐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志士의 유일한 목적이며, 정치에 참여하여 세상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학자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³¹⁾
- (2) 일주일 휴강 기간이 훌연히 끝났다. 내가 이룬 성과는 『東壁遺書』를 자세히 한 번 살펴보고 강의 2만 자를 편성한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救國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다만 당장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이다.³²⁾(방점 및 밑줄 필자 표기)

司, 2007, pp.52-53.

29) 『顧頡剛日記』第6卷(下), 1949. 7. 11.字 記事, pp.484-485.

30) 『顧頡剛日記』第6卷(上), 1948. 3. 28.字 記事, pp.247-248.

31) 『古史辨』第1冊「自序」p.12, “我受了這個潮流的湧盪，也是自己感到救國的責任，常常慷慨激昂地議論時事。……在這種熱情的包裹之中，只覺得殺身救人是志士的唯一的目的，為政濟世是學者的唯一的責任。” 이는 고힐강의 나이 19살 이던 치기 어린 시절의 일로, 『古史辨』에서는 뒤이어서 바로 고힐강이 곧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학술로 전환하게 된 내용이 나온다. 본문에서는 1920년대 이후 고힐강의 현실 참여 활동의 출발점이자 예시 중의 하나로서 든 것이다.

32) 『顧頡剛日記』第2卷(下), p.587, “停課一星期，忽忽畢矣。予之成績為審核『東壁遺書』一過，及編講義二萬言。予自信予之工作可救國，惟不能收速效耳。”(1931. 12. 5.)

(1)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 이전부터 고힐강의 현실 참여적이었던 모습을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1911년에 그는 최초로 ‘구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2)에서도 고힐강은 ‘구국’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때 ‘구국’이란 정치적 활동이 아닌 학술 활동을 의미한다. 고힐강에게 있어 ‘구국’의 의미가 정치적 활동이 아닌 학술 활동이었음을 다음과 같은 그의 발언들을 통해 더 잘 드러난다.

(1) 오후에 胡適之 선생의 「周秦諸子進化論」을 읽는데 나는 정 말로 감탄했다. 나는 이제야 내가 그간 연구해 온 先儒의 언명에 관한 것들이 바로 중국의 진화학설임을 알았다.
…… 현재에 옛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단지 지금의 일이 고 대의 원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³³⁾

(2) 孟餘 선생(顧兆熊: 필자 주)이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데 뜻이 있었다. (그가) 말하길 역사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모든 政論이 다 공허한 말이라고 했다. 按: 이것은 실로 큰 깨달음이다.³⁴⁾

(3) 오늘 靜秋(고힐강의 세 번째 아내: 필자 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내 소망을 체계적으로 말했다. 표면상으로는 비록 이것 저것 뒤엉킨 것[千頭萬緒]을 실제로는 하나의 원리로 꿰뚫는 것[一以貫之]이다. 모두 흥미로부터 연구에 이르고, 연구로부터 실용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靜秋가 나를 이해해 주니 내가 더욱 위안이 되었다.³⁵⁾

(4) 健常(譚慕愚: 필자 주)에게 편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3) 『顧頡剛日記』 第1卷(上), pp.73-74, “下午讀胡適之先生之「周秦諸子進化論」, 我佩服極了。我方知我年來研究儒先言命的東西，就是中國的進化學說。……現在所以不能忘古，只緣現在的事情，受制於古代的原因的緣故。”(1919. 1. 17.)

34) 『顧頡剛日記』 第2卷(下), p.424, “孟餘先生有心研究中國歷史，謂不將歷史問題弄清，所有的政論都是空話。按此實一很大的覺悟也。”(1930. 7. 29.)

35) 『顧頡剛日記』 第5卷(上), pp.299-300, “今晨與靜秋談，將予志願系統地說出，謂表面上雖千頭萬緒，而實際則一以貫之，均由興趣以達研究，由研究以致實用也。靜秋瞭解予，使予更慰。”(1944. 6. 17.)

“내가 『禹貢』을 간행하는 것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내가 通俗讀物을 펴내는 것은 중국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중국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³⁶⁾

- (5) 『中國通史』는 시대적 책임이다. 상고사, 중세사, 근세사 3편으로 나누어서 상고사는 중화민족과 문화의 형성을 그 중심 논제로 하며, 중세사는 중화민족의 확장을 그 중심 논제로 하고, 근세사는 중화 문화의 변화 및 그와 전 세계와의 관계를 그 중심 논제로 한다. 이 책은 매우 통속적인 필치로 써서, 전 국민의 새로운 인생관과 책임감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⁷⁾

위의 (1)에서 (5)의 사례들은 비록 고힐강이 직접적으로 ‘구국’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고힐강의 고대사 연구가 현실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때 현실 참여라 함은 고힐강의 학술 활동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禹貢』이나 通俗讀物의 편찬, 그리고 『中國通史』에 대한 집필 계획 등은 모두 고힐강 학술 활동의 주요 요소 중 일부로서, 그에게 있어 현실 참여가 곧 학술 활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례들인 것이다.

고힐강의 ‘구국’ 활동이 곧 그의 학술 활동이었다면, 어떻게 고힐강의 학문 연구가 ‘구국’을 위한 활동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고힐강은 理性의 힘으로써, 즉 啓蒙을 수단으로 삼아 非理性이 지배하던 당시 중국을 救濟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비이성’적인 면모에는 西勢東漸의 위기 앞에서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며 기존의 전통을 수호하려 했던 國粹主義가 대표적이었다.³⁸⁾ 고힐강은 그 자신의 고대사 연구를 통해 이성에 기반하지 않은 이

36) 『顧頡剛日記』 第3卷, p.376, “寫健常信曰，我辦『禹貢』，爲欲使中國人認識中國。我辦通俗讀物，是要使中國人知道自己是中國人。”(1935. 8. 7.)

37) 『顧頡剛日記』 第4卷(上), p.244, “中國通史一此爲時代的責任. 分上世、中世、近世三編，上世史以中華民族與文化之形成. 其中心論題，中世史以中華民族之擴大爲其中心論題，近世史以中華文化之轉變及其與全世界之關係爲其中心論題. 此書以極通俗之筆出之，以期養成全國人民之新人生觀及其責任心。”(1939. 6. 30.)

38) 『顧頡剛日記』 第2卷(下), 1931. 6. 12.字 記事, p.536; 『顧頡剛日記』 第2卷(下), 1931. 3. 2.字 記事, p.502.

러한 국수주의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구국’하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20세기 근대 중국의 ‘國粹派’는 1905년에 창립된 國學保存會 및 그 기관지인 『國粹學報』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러한 ‘국수파’의 존재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5·4新文化運動 시기부터였다. 5·4신문화운동은 처음부터 강력한 대립의 측면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전통을 철저히 부정하는 방식인 陳序經의 全盤西化論과 서구를 통해 중국의 역사성을 재평가하는 방식인 胡適의 國故運動, 그리고 梁啟超, 梁漱溟, 張君勣, 章士釗 등을 대표로 하여 중국의 ‘정신문명’ 혹은 ‘동방문명’의 우월성을 제기하는 문화보수주의³⁹⁾의 흐름으로 크게 나뉜다. 앞의 일파를 ‘서구화론자[西化派]’라고 한다면, 뒤의 일파가 바로 ‘국수파’이다. 서구화론자의 일부 사람들이 나중에 더욱더 마르크스주의로 기울어져 갔다고 한다면, 뒤의 일파는 이른바 ‘中國文化本位派’와 ‘現代新儒家’로 바뀌어 갔다.⁴⁰⁾

5·4신문화운동기에 이르러 ‘西學’과 ‘中學’의 근본적인 대립과 적대적인 관계는 더욱 두드러졌다.⁴¹⁾ 1920년대 들어서는 좌측에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이 근대 중국에서의 큰 흐름 중 하나에 놓여 있었던 한편, 우측에는 19세기 개혁파의 遺老들과 국민당의 新傳統主義者를 포함한 지식인 계층 및 소집단이 또한 자리하고 있었다.⁴²⁾ 한편 胡適과 고힐강은 양자

39) ‘문화보수주의’란 시대성보다는 역사성의 긍정에 중점을 둔 사상·문화 사조이다. 장구한 중국사 속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전통을 파괴하기보다는 전통 역시 시대성에 비추어 비판하고,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학습하여 전통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의 현재적·미래적 효용을 만들고, 중국이라는 文化體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했던 사상적, 문화적 지향을 가진 사조였다. 대표적으로 學衡派, 章士釗의 東方文化派, 馮友蘭·錢穆의 新儒學 등이 있다. 1920~30년대 학형파 등 문화보수주의 계열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에서 주류 담론으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전인갑, 『현대중국의 제국몽: 中화의 재보편화 100년의 실험』, 學古房, 2016, pp.16–17). 다만 본고에서는 보수주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보수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를 구분하여 문화보수주의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40) 李澤厚 著, 김형종 譯, 『중국현대사상사론』, 한울, 2005, p.321. 일반적으로 ‘국수파’란 章太炎, 劉師培 등과 같이 辛亥革命 이전에 극렬한 排滿 활동을 벌인 민족주의 혁명가들을 주로 일컫지만, 본고에서는 전형적인 ‘국수파’ 이외에 각종 문화보수주의자들 역시도 크게 봄서는 西化에 반대하고 중국 문명의 우월성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국수파’에 포함시켜 서술하였다.

41) 陳獨秀, 「吾人最後之覺悟」, 『青年』 第1卷 第6期, 1916; 吳虞, 「家族制度爲專制主義之根據論」, 『新青年』 第2卷 第6期, 1917; 吳虞, 「吃人與禮教」, 『新青年』 第6卷 第6期, 1919 등.

사이에서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하여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수호하고자 했던 ‘국수파’들은 신문화운동 진영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렬하게 비판했다. 신문화운동의 여파로 1919년 단 일 년 사이에 400여 종의 백화문 신문·잡지가 우후죽순처럼 출현하였으며, 1920년 북경정부의 교육부는 마침내 中學과 小學에서 백화문으로 된 어문 교재를 쓰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수년 뒤에 교육총장이 된 章士釗는 “천하의 사람들이 호적 군의 이야기를 기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한다!”, “온 나라가 미친 것 같다”⁴³⁾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당시의 청년들이 “適之를 大帝로 생각하고 縢溪를 上京으로 생각하여, 마침내 오로지 『胡適文存』에서 문장의 義法을 찾고 『嘗試集』에서 詩歌의 운율을 찾으면서 눈을 떤 데로 돌리지도 않고 붓을 잡시도 멈추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더·타·타·마·너·빠·리에(底·他·它·嗎·呢·吧·咧)의 文變을 낳게 되었다”⁴⁴⁾고 격렬한 비난을 하기조차 하였다. 章士釗는 古文의 사용과 尊孔讀經을 주장하고 신문화운동에 반대한 보수파인 ‘甲寅派’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국수파’에 속하는 또 다른 사람인 북경대학 교수 張君勣는 1923년에 벌어진 그 유명한 ‘과학과 玄學의 논쟁’에서 「人生觀」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고 그 것을 『清華周刊』 제272기에 발표했다. 張君勣는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⁴⁵⁾ 따라서 “인생관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므로 오직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가 찾는 것 밖에 없다[反求諸己]”는 것이다. 즉 ‘인생관’은 외재적인 물질문명이나 과학이 결정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국수파’의 몇몇 대표 주자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국수파’로는 잘 분류되지 않는 ‘學衡派’⁴⁶⁾ 등과 같은 문화보수주의자들 역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42) Schneider,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1971, p.31.

43) 章士釗, 「評新文學運動」, 張若英 編, 『中國新文學運動史資料』, 光明書店, 1934, p.237.

44) 章士釗, 「評新文學運動」, 1934, p.229. 適之는 胡適의 字이며, 安徽省 縢溪縣 은 胡適의 本籍地이다. 『胡適文存』은 모두 3집 12권으로 1921~1926년 사이 출판되었으며, 底·他·它·嗎·呢·吧·咧 등은 모두 다 백화문에 자주 쓰이는 代名詞, 助詞들이다.

45) 張君勣, 「科學與人生觀」, 『科學與人生觀』, 亞東圖書館, 1923, p.9.

46) 흔히 『學衡』을 중심으로 결집한 일련의 지식인 집단을 ‘학형파’라 부른다. 그렇다고 『學衡』에 참여한 필진들이 하나의 학파를 이룰만한 학문적 공감

뿐 신문화운동 진영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가했다. 실제로 『學衡』의 사회비평 중 많은 분량이 학술·문화계의 속류화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출세와 공명심, 대중 영합, 비학술적 방법에 의한 학술문화운동, ‘계몽’ 진영의 문화 권력화와 당파성, 그리고 서양학자를 내세운 학문 권력 장악을 학술·문화의 속류화 현상으로 지목한 梅光迪의 견해는 ‘학형파’의 공통된 인식이었다.⁴⁷⁾

한편 호적은 ‘국수파’와는 정반대 편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다. 중국근현대 사상사에서 호적의 주요한 공헌은 당시의 학술계에 낡은 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전례 없는 충격을 가져다준 데에 있었다. 고향강은 바로 스승이었던 호적의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었다. 당시의 학술계의 形勢는 호적에 따르면 “南高(南京高等師範學校, 그 후 東南大學으로, 다시 中央大學으로 개편: 필자 주)는 온건과 保守自持를, 북경대학은 급진과 개혁을 業으로 삼았다. 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학풍은 그 당시 남북 두 파 학자의 대표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⁴⁸⁾ 호적을 필두로 하는 ‘계몽’ 사조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도 東南大學을 중심으로 5·4신문화운동에 반대하는 학풍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호적의 직접적인 지도와 영향을 받아 두드러졌던 것은 특히 당시 젊은 세대였던 고향강을 대표로 하는 ‘疑古派’의 역사 연구 작업이었다. 고향강은 『古史辨』『自序』에서 호적이 중국철학사를 강의하였을 때 받았던 사

대를 형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창간 직후부터 발기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國故의 재구성에 대한 필진 간의 견해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복잡한 인적 구성, 『學衡』의 주도권을 둘러싼 불협화음, 필진 간 문화이념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國故의 발전적 계승과 또 다른 서구의 이론인 反공리주의적 新人文主義에 공감하는 일련의 지식인 그룹이었다 해야 할 것이다(전인감, 『현대중국의 제국몽』, 2016, p.145). 『學衡』은 1922년 1월에 창간되어 몇 차례의 정간에도 불구하고 총 79기로 종간되는 1933년 7월까지 약 10년간 발행되었다. 吳宓이 종간까지 총편집을 맡았고, 출판 경비도 충당하였다. 핵심 필진은 吳宓과 胡先驥, 湯用彤, 柳詒徵, 梅光迪이며, 주요 필진으로는 景昌極, 張蔭麟, 劉永濟, 郭斌龢 등이 있다.

47) 梅光迪, 「評今人提唱學術之方法」, 『學衡』第2期, 1922, p.7.

48) 이 발언은 1928년 5월 21일 전국교육회의(南京에서 개최) 후 중앙대학 교장 張乃燕의 초청으로 동 대학 주최 연회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이다. 중앙대학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5·4신문화운동 시기 동 대학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측면은 있으나 北京과는 전혀 다른 학풍이 南京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던 것은 분명하다(胡適 著, 曹伯言 整理, 『胡適日記全編』 5, 安徽教育出版社, 2001, pp.121-122).

상적 충격을 회고하였으며,⁴⁹⁾ 1921년 호적은 고힐강에 편지를 써서 ‘의고’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⁵⁰⁾ 고힐강이 그의 학술 생애 초기부터 호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음을 國故運動을 대변하는 그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22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글에서 고힐강은 호적의 기본적인 논지에 더하여 ‘國粹派’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가했다. 章太炎 같은 학자들이 초기의 國故整理 작업에서 결국 영구히 존속시킨 것은 고힐강 자신이 타파하고자 했던 ‘종교적 태도’에 속하는 것들이며, “신청년은 家派의 밖에 있는 것으로, 그들의 목표는 고대 사상가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위를 파악하여,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⁵¹⁾ 또한 고힐강의 학문하는 자세 및 ‘과학’에 대한 기본 관점 역시도 호적의 그것과 거의 유사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결코 학문을 연구해 본 일이 없다면서 오래도록 뿐리내린 經學적 관점에 대해 비판했고,⁵²⁾ 단지 실용만을 위해 학문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⁵³⁾ 고힐강은 이후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는 점에서 그의 스승이었던 호적과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의 史學 사상의 측면에서는 크게 보면 호적과 하나로 묶일 수 있다.⁵⁴⁾ 중국의 고전을 재료로 과학을 추구한다는 國故 연구의 이상은 처음부터 역사 연구에 닿아 있는 것이었다.⁵⁵⁾

결국 고힐강이 추구한 것은 ‘科學的 歷史學’이었다. 그것은 정치나 도

49) 『古史辨』第1冊「自序」, p.36.

50) 胡適, 「自述古史觀書」, 『古史辨』第1冊, pp.22-23.

51) 顧頡剛, 「我們對於國故應取的態度」, 『小說月報』第14卷 第1期(1923. 1.), pp.3-4.

52) 顧頡剛, 「顧序」, 『國立中山大學語言曆史學研究所周刊』, 卷六 六二-六四期合訂本(1929. 1. 16.), p.3.

53) 顧頡剛, 「一九二六年始刊詞」, 『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周刊』, 第2卷 第13期(1926. 1. 1.), p.7.

54) 許冠三에 따르면 新史學派 내에서는 학문적 방식에 따라 6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① 사학의 새로운 뜻을 제창한 자: 梁啟超, 章炳麟 ② 고증학파: 王國維, 陳垣 ③ 방법학파: 胡適, 顧頡剛 ④ 사료학파: 傅斯年, 陳寅恪 ⑤ 史觀 학파: 李大釗 외에 ⑥ 史建學派가 있다(許冠三, 『新史學九十年』, 1986).

55) 1923년 1월 북경대학에서 창간한 『國學季刊』의 發刊宣言을 쓴 호적은 연구의 3대 방침을 내세우며 그 첫째로 “역사적 시각을 써서 연구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다(胡適, 「北京大學國學季刊發刊詞」, 趙家璧 主編, 阿英 編選, 『中國新文學大系』第十集, 上海良友圖書印刷公司, 1936 所收, p.186). 역사적 시각이란 정치나 衛經明道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호적이 철학사 연구를 하면서 ‘역사적 태도’를 강조한 데서도 그러한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許冠三, 『新史學九十年』, 1986, p.161).

덕과 어울려 주장을 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였으며, 정치적 응용을 목표로 삼지 않는 ‘純粹科學’에 대한 요구로 제창되었다.⁵⁶⁾ 그러한 과학적 역사학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고힐강 자신은 “다만 일생을 독서하며, 과학적 사학자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모든 생명을 학문 생활 속에 기울이겠다”고 명시했다. 그는 “정치에 흥미가 없고 또 사회 활동의 재능도 없기 때문에, 나는 연구를 나의 유일한 救國事業으로 삼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⁵⁷⁾ 이러한 언급에서 미루어 보면, 고힐강은 ‘國民’의 소임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고힐강은 國亡의 위기 상황에서도 학문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항일운동의 최전선에서 대중용 책자를 출판하였지만, 그 목적을 위해 학문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의 나이 20세 전후에 깨달은 이러한 원칙은 1930~40년대의 위기 상황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철저히 지켜졌던 것이다.⁵⁹⁾ 이러한 고힐강의 면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고힐강의 학술과 현실 참여 양자 간에는 분리되어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고힐강이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비판에는 1930~40년대 활동, 그중에서도 『禹貢』 잡지의 발간을 예시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제2장에서는 우선 비판의 주된 대상이 되는 『禹貢』 잡지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56) 顧頡剛, 「北京大學國學門週刊發刊詞」, 趙家璧 主編, 阿英 編選, 『中國新文學大系』第十集, 上海良友圖書印刷公司, 1936 所收, p.169, p.175.

57) 『古史辨』第1冊「自序」p.90.

58) 張永權, 「顧頡剛의 學術 專門化 摸索과 1920年代 中國 知識人社會」, 2002, p.16.

59) 顧頡剛, 『古史辨』第1冊「自序」, p.25, pp.98-99. 고힐강의 이러한 학문하는 자세는 1920~30년대 유물사관이 당시 중국의 지식계를 점차 풍미하게 된 상황에서도, 그전과 변함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顧頡剛, 「問孔子學說何以適應於秦漢以來的社會書」(1926), 『古史辨』第2冊, p.150).

2. 학술잡지『禹貢』의 편집과 ‘救國’

고힐강은 정치적 자각 의식을 가지고 정치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었다. 특히 1930~40년대 ‘국망’의 시기에 고힐강의 현실 참여 활동은 더욱 두드러졌다.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通俗讀物을 통한 항일 선전 활동에 종사하기도 했으며, 1936년에는 그가 벌이는 활동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國民黨에 정식으로 가입하기도 하였다.⁶⁰⁾ 뿐만 아니라 비록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문제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항상 하였고,⁶¹⁾ 중국의 미숙한 학문 체계와 대학 내 파벌 싸움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재를 아끼는 마음으로 후학 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⁶²⁾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기 고힐강의 현실 참여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들어지는 예시는 바로 그가 창간한『禹貢』잡지이다.

고힐강의『禹貢』잡지 편집에 대해서 동시대인들은 애국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의도에서『禹貢』이 편집된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劉起釤는『禹貢』잡지가 중화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중의 애국 정서를 환기했을 뿐 아니라 변강 연구와 민족사 및 민족 현황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공헌한 바 있다고 평가하였다.⁶³⁾ 또한 禹貢學會의 또 다른 중요 멤버인 史念海는 “『禹貢』은 애국학술단체로서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해 오는 민족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일정한 대응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⁶⁴⁾ 이를 보면 고힐강이『禹貢』을 편집하던 당시 동시대인들에게『禹貢』은 ‘민족주의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성격의 잡지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대인들의『禹貢』에 대한 평가는 후대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진다. 즉, 고힐강과『禹貢』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에선『禹貢』의 학술적인 성과를 상찬함과 동시에 그것을 항일의

60) 이후로도 주편을 맡고 운영하였던 두 단체, 다시 말해 항일 선전물을 제작하였던 通俗讀物編刊社와 역사지리학 잡지『禹貢』을 발간하고 있던 禹貢學會의 경비 마련을 위해 고힐강은 국민당 측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었다(余英時,『未盡的才情』, 2007, pp.52-53).

61) 『顧頡剛日記』第5卷(下), 1946. 5. 25.字 記事, p.665; 『顧頡剛日記』第5卷(下), 1946. 8. 17.字 記事, p.700.

62) 『顧頡剛日記』第3卷, 1937. 7. 31.字 記事, p.673.

63) 劉起釤,『顧頡剛先生學術』, 中華書局, 1986, p.234.

64) 史念海,『中國歷史地理論叢』「序」,陝西人民出版社, 1984.

틀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⁶⁵⁾ 뿐만 아니라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禹貢』이 정간된 후 고힐강이 벌인 활동들 역시 단순히 ‘구국’을 위한 항일 활동의 하나로만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⁶⁶⁾

이렇듯 이 시기 고힐강의 『禹貢』 발간 활동은 그가 ‘민족주의자’로 가장 격렬하게 공격받거나 상찬받는 주된 근거가 된다. 본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禹貢』 잡지의 내용을 직접 분석해 봄으로써 위의 연구들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힐강과 그의 『禹貢』 활동을 정말로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禹貢』 창간에 대한 고힐강의 근본적인 목적의식은 「發刊詞」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禹貢』 잡지의 성격이 ‘민족주의적’이라고 비판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서 ‘민족주의’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민족주의(Nationalism)’라는 단어와 개념을 둘러싼 대체로 강력한 부정적인 함의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에 유의미한 경계, 즉 국경을 제공했고, 국경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근대국가가 엘리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민에게 각인시켰고, ‘취약한 자들(the vulnerable)’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했으며, 모든 구성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서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⁶⁷⁾ 현재에도

-
- 65) 馬大正·劉逖, 『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 一門發展中的邊緣學科的演進歷程』, 黑龍江教育出版社, 1998 → 조세현譯,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4; 徐兆奎, 「禹貢學會」의 歷史地理研究工作, 『歷史地理』 1, 1981; 吳懷祺, 「禹貢」半月刊의 愛國主義史學思想, 『史學史研究』 1, 1983; 朱士嘉, 「顧頡剛先生與禹貢」半月刊, 『晉陽學刊』 4, 1984; 馮春龍, 「試論禹貢學會對歷史地理學的貢獻」, 『揚州師院學報』 4, 1987; 馬大正, 「略論禹貢學會的學術組織工作」, 『中國邊疆史地研究』 1, 1992; 徐莊, 「禹貢半月刊」編輯思想之研究, 『寧夏社會科學』 6, 1992; 徐象平, 「禹貢半月刊」的編輯特色, 『陝西師大學報』 9, 1995; 顧潮, 「顧頡剛先生與禹貢」半月刊, 『中國歷史地理論叢』 3, 1997; 田亮, 「禹貢學會和禹貢」半月刊, 『史學史研究』 3, 1999; 朱守芬, 「顧頡剛與禹貢半月刊」, 『史林』 1, 2000; 李習文·張玉海, 「禹貢半月刊回族伊斯蘭教研究之特點」, 『青海民族研究』 2, 2001; 韋勇強, 「顧頡剛對中國歷史地理研究的開創性貢獻」, 『廣西師範大學學報』 1, 2007; 森鹿三, 「禹貢學派の人々」, 『東洋史研究』 第1卷 2號, 1935; 竹内好, 「顧頡剛と回教徒問題」, 『回教圈』 5-3, 1941; 秋山元秀, 「顧頡剛: 中國歴史地理學の創始者」, 『地理』 42-2, 1997; Schneider,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1971.
- 66) 『禹貢』을 단순히 ‘구국’을 위한 항일 활동의 하나로만 보는 연구들의 구체적인 서지사항에 관해선 각주 7번을 참조.
- 67) Yeal Tamir, *Why Nation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물론 아

이리한데, 고힐강이 살던 당시는 일본의 침략 앞에서 조국이 직접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상황으로서, 학문을 하는 지식인조차도 현실 세계와 부단히 상호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뒤에서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그렇듯 위급한 ‘국망’의 시기에도 학문을 현실 정치를 위해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힐강의 신념 자체는 1920년대부터 그 이후까지도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 ‘민족주의’는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성질의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영토 분할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 非漢族의 ‘민족자결’을 명분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고힐강의 ‘구국’에 대한 의지가 발현된 바 있으나,⁶⁸⁾ 그러한 일면을 가지고서 그를 무조건 ‘애국주의자’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여기서의 ‘민족주의’는 ‘국수주의 역사학’과는 염연히 다른 개념이다. ‘국수주의 역사학’은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특성만이 담지된 것으로서 특정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게 과거를 왜곡하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⁶⁹⁾

시아, 그리고 중국의 경우 이러한 서구의 ‘민족주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겠지만, ‘민족’과 ‘근대’의 개념 역시 20세기에 서구 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도입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참조 할 수 있다.

- 68) 顧頡剛, 「中華民族是一個」, 『益世報·邊疆週刊』(昆明), 1939. 2. 13.(顧潮·顧洪編校, 『中國現代學術經典: 顧頡剛卷』, 河北教育出版社, 1996 所收), p.779.
- 69)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과 통일과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이자 강령으로 정의된다(장문석, 『민족주의』, 책세상, 2011, p.58).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국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느끼고 타국을 경멸하는 과장되고 비이성적인 애국주의”를 의미하는 국수주의, 곧 쇼비니즘(chauvinism)이 탄생했다(Snyder, Louis L., *Encyclopedia of Nationalism*, Paragon House, 1990, p.52). 따라서 국수주의는 ‘민족주의’가 극단적 형태로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민족주의’가 國亡의 위기에서 등장하여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이래 국수주의가 등장했고, 그 한 갈래인 ‘국수주의 역사학’(pseudo history)은 2000년대 정도까지 ‘재야사학’ 또는 ‘상고 사학’으로 불리면서 활동했다. 그들이 ‘국수주의 역사학’으로 불리는 이유는 한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광활한 영토를 지녔던 시기가 있었음을 강조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잘못 읽고 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했으며, 정관계 인사 및 대중 여론을 활용하는 등 학문적 탐구와는 거리가 먼 수단과 방법들을 구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을 전개했기 때문이다(정요근, 「청산되어야 할 적폐: 국수주의 유사 역사학」, 『역사와 현실』 105, 2017, pp.3-4). 본문에서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역사학’이라는 용어 양자를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고힐강이 ‘민족주의자’라고 비판받는 「發刊詞」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자.⁷⁰⁾

근 수십 년 사이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많이 받아 왔고, 이 때문에 민족의식의 촉발도 대단히 높아졌다. 이러한 의식 하에서 모두들 『中國通史』가 출현해 ①우리 민족의 성분이 어떠한가와 ②응당 어떤 지역이 우리 것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의 어려움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③민족과 지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의 지리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니 민족사 연구가 어떻게 근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④우리의 동쪽 이웃(일본: 필자 주)을 살펴보면, 우리를 침략할 의도를 갖고 ‘本部’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18省을 부르는데 이는 우리의 변경지역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바보같이 그냥 그들의 마취에 걸려 어떤 자리 교과서라도 모두 이와 같이 부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치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관념의 원인을 따져보면 「禹貢」편과 관련이 있다. ⑤「禹貢」편이 『書經』에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이 함께 읽는 것이지만 幽州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북이 碣石까지만 나와 있어 그 성현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중국의 동북 경계가 확실히 이와 같다고 여기게 된다.⁷¹⁾

그런데 위와 같은 「발간사」에 대한 비판에서, 일본의 침략이라는 국가

70) 여기서 「發刊詞」 부분의 번역은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pp.36-37을 참조한 것이다. 이하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서도 해당 연구를 인용할 때는 하주형의 번역을 그대로 옮겼음을 밝혀둔다.

71) “這數十年中，我們受帝國主義者的壓迫真够受了，因此，民族意識激發得非常高。在這種意識之下，大家希望有一部『中國通史』出來，好看看我們民族的成分究竟怎樣，到底有哪些地方是應當歸我們的。但這件工作的困難實在遠出於一般人的想像。民族與地理是不可分割的兩件事，我們的地理學既不發達，民族史的研究又怎樣可以取得根據呢？不必說別的，試看我們的東鄰蓄意侵略我們，造了“本部”一名來稱呼我們的十八省，暗示我們邊陲之地不是原有的；我們這群傻子居然承受了他們的麻醉，任何地理教科書上都這樣地叫起來了。這不是我們的恥辱？然而推究這個觀念的來原，和「禹貢」一篇也有關係。「禹貢」列在『書經』，人所共讀，但是沒有幽州，東北只盡於碣石，那些讀聖賢書的人就以為史國的東北境確是如此的了。”(顧頡剛, 「發刊詞」, 『禹貢』 1-1, 1934, p.2)

적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는 고힐강 역시 ②와 같은 영토 문제에 대해 중국이 옹유해야 할 영토가 어떻게 현재의 형태로까지 ‘진화’해 왔는가를 해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④에 대해서도 고힐강이 ‘本部’라는 표현 자체에 중국의 강역을 축소시키려는 일본의 침략 의도가 녹아들어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지만, 정작 자신도 일찍이 ‘本部’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⁷²⁾ ‘本部’라는 표현이 중국 영토를 부분적으로만 인식시킬 가능성이 다분함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⑤의 경우는 중국의 古典이 영토 문제에 있어 동북지역이 중국에 귀속돼야 할 당위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일본 측의 논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고힐강이 『禹貢』 전호에 걸쳐 중국 고대 지리연혁에 대한 다대한 논문을 게재하려 한 것은 결국 ⑤와 같은 난점을 학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중국이 당면한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학술 연구가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발간사」에서 엿보인다는 것이다.⁷³⁾

그러나 『禹貢』에서의 역사지리학 연구가 영토 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본고에서도 부정할 생각이 없다. 제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술 연구를 통해 ‘구국’하겠다는 고힐강의 문제의식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일관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④의 경우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밝힘으로써 당시 중국의 영토를 보존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서, ‘구국’을 지향했던 고힐강에 대해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②에서 드러나는 고힐강의 문제의식은 장역의 유동성을 통해 ‘진화하는 중국 지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①의 경우에서처럼, 중국사의 주체로서 고힐강이 漢族과 非漢族을 포괄한 중국 민족을 설정하면서 그 주체의 활동 공간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했던 그의 초기의 학술적인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⁷⁴⁾ 그리고 고힐강이 ⑤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분명 『禹貢』에 실린 수많은 고대 지리연혁 논문들의 합의가 간접적으로 중국이 당면한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학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하

72) 顧頡剛·王重麟 共編,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上冊, 『顧頡剛古史論文集』卷2, p.10; 顧頡剛, 「孟康女故事的轉變」, 『歌謠』第69號, 1924(錢小伯 編, 『顧頡剛民俗學論集』, 上海文藝出版社, 1998에 전재된 것을 p.93에서 재인용).

73)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pp.37-38.

74) 顧頡剛, 「答劉·胡兩先生書」, 『古史辨』第1冊, 1992, p.99.

는데,⁷⁵⁾ 이는 『禹貢』이 전체적으로 민족사 연구의 방향성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禹貢』의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주관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③에 대해서는 ①과 ②의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대전제로만 여기고 있는데, ③은 단순히 민족사와 지리 양자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지적한 문구로서, 오히려 역사지리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면 이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발간사」를 활용해 고힐강과 그의 『禹貢』 활동에 대해 ‘민족주의적’이었다고 비판한 근거들을 반박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위의 본문에서 살펴본 『禹貢』「發刊詞」의 또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禹貢』은 중국 地理沿革史의 첫 편으로서, 우리 작업의 의의를 표현하여 사용하기에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여 이 제목을 빌려서 우리 학회와 이 간행물을 칭하였다. 우리는 일반적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리연혁 이 방면으로 일부 주의력을 돌리게 하여, 우리의 역사학이 점차 견고한 기초 위에 구축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첫째,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 서적 더미에는 地理書가 많아서 책을 읽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교활함을 취하지 않고 명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리는 사실이자 번쇄한 사실이어서, 한 두 권의 생소한 怪書에만 의지해서는 크게 議論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清代의 학자들이 「禹貢」, 『漢志』, 『水經』 등의 책을 다스리는 각고의 인내와 엄밀한 정신을 회복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보다 진보한 방법, 즉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더욱 광대한 효과를 얻는 것을 구해야 한다.⁷⁶⁾

75)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p.38.

76) “『禹貢』是中國地理沿革史的第一篇，用來表現我們工作的意義最簡單而清楚，所以就借了這個題目來稱呼我們的學會和這個刊物。我們要使一般學歷史的人，轉換一部分注意力到地理沿革這方面去，使我們的史學逐漸建築在穩固的基礎之上。我們一不偷懶，因為故紙堆中有的是地理書，不讀書的便不能說話；二不取巧務名，因為地理是事實並且是瑣碎的事實，不能但憑一二冷僻怪書，便大發議論。我們一方面要恢復清代學者治『禹貢』、『漢志』、『水經』等書的刻苦耐勞而謹嚴的精神，一方面要利用今日更進步的方法，——科學方法，以求博得更廣大的

『발간사』에 이미 적시된 대로, 『禹貢』은 『尚書』의 편명 중 하나로서 중국 지리연혁사의 첫 편이기 때문에 고힐강이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그 명명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어서 고힐강은 『禹貢』을 지리연혁사의 기초적인 연구라고 위치 지우면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큰 의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청대 학자들의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더욱 진전된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비롯한 당대의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禹貢』 편집의 목적까지도 비교적 명확하게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힐강은 「발간사」에서 『禹貢』을 통해 그가 하고자 하는 실증적이고 세밀한 고증 작업이 역사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이전에 학문을 연구할 때는 어쨌든 몇몇 권위자를 그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했다. 마치 『毛詩』를 연구하는 자는 毛 나리의 노복을 자처하는 것과 같았다. 이러한 관념 하에서는, 자연히 門戶가 나뉘고 많은 家派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영웅적 사상을 철저히 타파하고, 다른 사람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몇 명의 천재가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수고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약간의 사람들을 모아서 오랫동안 연구하여 평범한 역량과 협업의 정신을 사용하여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확실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벽돌로 건축한 것이 신기루보다 나은 것과 같다.⁷⁷⁾

效果。”(顧頡剛, 「發刊詞」, 『禹貢』 1-1, 1934, p.3)

77) “以前研究學問，總要承認幾個權威者作他的信仰的對象。好像研究『毛詩』的，就自居於毛老爺的奴僕。在這種觀念之下，自然會得分門別戶，成就了許多家派。我們現在，要澈底破除這種英雄思想，既不承認別人有絕對之是，也不承認自己有絕對之是。我們不希望出來幾個天才，把所有的問題都解決了，而只希望能聚集若干肯作苦工的人，窮年累月去鑽研，用平凡的力量，合作的精神，造成偉大的事業，因為惟有這樣纔有切實的結果，正如磚石建築的勝於蜃氣樓臺。”(顧頡剛, 「發刊詞」, 『禹貢』 1-1, 1934, p.5)

이는 고힐강이 단순히 『禹貢』에서의 협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일 뿐 아니라, “몇 명의 천재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길 바랄 수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고힐강이 역사학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측면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선언이다. 실제로 「발간사」 중에는 고대 지리를 연구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다섯 가지가 적시되어 있기도 하다.⁷⁸⁾ 이렇게 봤을 때,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힐강의 『禹貢』 편집의 의도가 단순히 ‘민족주의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禹貢』의 ‘민족주의적’인 측면이 「발간사」에 동시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禹貢』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실제에 대해 비로소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자’로서의 고힐강의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禹貢』을 사례로 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작 『禹貢』 잡지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거나 자세히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⁷⁹⁾ 하지만 본고에서는 『禹貢』 잡지 속의 글들로 직접 들어가서 잡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禹貢』 잡지에 실린 글들을 우선 분류해 보면, ‘고대 지리문헌에 관한 연구’, ‘歷代 史地에 관한 연구’, ‘민족문제 연구’, ‘邊疆史 연구’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⁸⁰⁾ 『禹貢』 제1권을 예로 들면, 1권에 기재된

78) 구체적인 업무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산만하고 잡다한 옛 서적 더미에서 中國地理沿革史 책 한 부를 정리해 낸다. ② 가장 최신의 제작법을 사용하여 몇 가지 정확하고 상세하며 또한 쓸모 있는 地理沿革圖를 그려낸다. ③ 모든 중국 역사상의 지명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하나하나 고증하여, 유용하고 정확하면서도 상세한 중국역사지명사전 한 부를 편찬해 낸다. ④ 각 시대의 地理志를 모두 한 차례 상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다. ⑤ 사료를 수집해서 기록하여 각종 전문적인 연구를 행한다(顧頽剛, 「發刊詞」, 『禹貢』 1-1, 1934, pp.3-4).

79) 이는 『禹貢』 잡지가 민중의 애국주의적 정서를 고양했다고 칭찬하는 1980년대 이후 중국 대륙의 연구들에서만이 아니라(吳豐培, 「憶<禹貢>及其復刊鱗爪」, 『中國邊疆史地』 1, 1988; 孫喆, 「<禹貢>半月刊與20世紀三四十年代的中國邊疆研究」, 『中州學刊』 4, 2012; 徐莊, 「<禹貢半月刊>編輯思想之研究」, 『寧夏社會科學』 6, 1992 등),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頽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Schneider의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1971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특히 Schneider의 경우 고힐강이 西北 지역 고찰을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가 ‘민족주의자’로 점차 바뀌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연구 자체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다(Schneider,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1971, pp.295-296).

총 100편의 글 중 고대 지리문헌에 관한 연구와 고증에 대한 문장은 총 34편으로, 책 전체의 34퍼센트에 해당한다.⁸¹⁾ 이들 연구에서는 正史 地理志와 고전문헌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고대 지리문헌에 관한 연구’에서 역대 정사 지리지에 관한 연구들은 『史記』『貨殖列傳』, 『漢書』『西域傳』, 『兩唐書』『地理志』, 『宋史』『地理志』, 『遼史』『地理志』 등을 중심으로, 譚其驥, 馮家昇, 史念海 등이 서로 다른 朝代의 정사 지리지에 대한 고증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翟崇岐가 『宋史』『地理志』에 대해 행한 고증과 史念海가 『兩唐書』『地理志』에 대해 행한 校勘 작업 등이 있다. 翟崇岐는 『禹貢』 제1권 제6기에 기재한 「『宋史』『地理志』考異(總序)」를 시작으로, 京城路, 京畿路, 京東路, 京西路 등 각 路의 지리지에 대해 고증한 글 총 15편을 연속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문체는 清代의 菲기체와 고증의 문체를 닮았으며, 전통적인 고증 방식에 따라서 『宋史』『地理志』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⁸²⁾ 한편 ‘고전 지리문헌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禹貢』, 『山海經』, 『穆天子傳』, 『周禮』『職方』 등과 같은 先秦 시기의 중요한 지리 문헌에 대해 세밀한 고증과 정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許道齡이 『禹貢』 제1권 제4기에 발표한 「從夏禹治水說之不可信談到『禹貢』之著作時代及其目的」이라는 글은 사회·정치·경제·도구[工具] 이 네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예시들을 열거함으로써, 夏禹 치수의 전설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尚書』『禹貢』의 제작 연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면서, 「禹貢」이 만들어진 시기는 아마도 전국시대 후기일 것이라고 보았다.⁸³⁾ 이렇듯 典籍에 대한 考校 및 대조, 그리고 제작 시대, 판본에 대한 고증 등을 통해 그 본래의 면모로 되돌려놓으려는 연구는 『禹貢』의 고대 지리문헌에 관

-
- 80) 『禹貢』에 실린 글들의 성격 분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禹貢學會 사람들이 ‘春秋 이전의 지리와 민족’, ‘戰國~漢 시기의 지리와 민족’, ‘三國~唐 시기의 지리와 민족’, ‘宋元 시기의 지리와 민족’, ‘明清 시기의 지리와 민족’, ‘邊疆 史地’, ‘內地 각 種族’, ‘中外交通’, ‘方志學’, ‘地圖編制法’, ‘地方小記·游記·書評·目錄’, ‘傳記·通論·雜類’ 등 총 12가지 종류로 이미 분류한 바 있다(「本會三年來工作略述」, 『禹貢』 7-1·2·3, 1937). 그러나 본고에서는 『禹貢』 잡지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략적인 분류 방법에 의거하여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았다.
- 81) 許子豪, 「禹貢學會與『禹貢』半月刊在歷史地理學史中地位塑造的研究」, 雲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p.16.
- 82) 翟崇岐, 「『宋史』『地理志』考異(總序)」, 『禹貢』 1-6, 1934, pp.8-11.
- 83) 許道齡, 「從夏禹治水說之不可信談到『禹貢』之著作時代及其目的」, 『禹貢』 1-4, 1934, pp.18-20.

한 문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고대 史地에 관한 연구’ 중에서는 연혁지리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다루는 시기는 선진시대에서부터 청대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고힐강의 「古史地域的擴張」(1-2), 譚其驥의 「元福建行省建置沿革考」(2-1), 史念海의 「兩漢侯國考」(4-2, 4-5), 趙泉澄의 「清代地理沿革表」 등은 모두 학술 논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趙泉澄의 「清代地理沿革表」라는 글은 청대의 省을 단위로 한 내용으로서 『禹貢』 제2권 제10기부터 기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禹貢』의 정간으로 인해 기재를 모두 마치진 못했지만, 혼란스러운 청대 행정 구역 설치에 대해 행한 재정리는 고증에 충실해 내용이 상세하며, 청대 지리연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⁸⁴⁾ 또한 ‘고대 史地에 관한 연구’ 중에서는 地名에 대해 고증한 것도 많았는데, 『禹貢』 제1권 제1기 陳家驥의 「雲土夢作父」를 시작으로, 이후 唐蘭의 「辨“冀州”之“冀”」(1-6), 谷霽光의 「北魏六鎮的名稱和地域」(1-8), 劉盼遂의 「六朝稱揚州爲神州考」(1-9) 등 여러 글에서 禹貢學會의 학자들은古今 지명의 名聲이나 命名의 원칙 등 여러 문제에 관한 토론과 고증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孫海波의 「周金地名小記」라는 글에서는 金文을 통해 周代의 지리, 지명에 대한 고증을 진행하였다.⁸⁵⁾

마지막으로 ‘민족문제 연구’와 ‘邊疆史 연구’의 경우는 민족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제1권에서는 단 11편에 불과했던 관련 연구가 제6권, 제7권에 이르게 되면 총 80여 편에 이르게 된다. 혹자가 말하듯이 『禹貢』 제4권(1935) 이후로는 당초 상고사에 대한 고힐강의 학문적 방침 역시 점차 西北 및 回教 민족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등 잡지의 소재나 기고자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⁸⁶⁾ 실제로 살펴보면 『禹貢』

84)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 『禹貢』 2-10, 1935, pp.8-15;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山西省)」, 『禹貢』 3-9, 1935, pp.24-27;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河南省)」, 『禹貢』 3-11, 1935, pp.20-22;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禹貢』 4-1, 1935, pp.45-48;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禹貢』 4-4, 1935, pp.71-72;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禹貢』 4-9, 1936, pp.35-37;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禹貢』 4-11, 1936, pp.31-46;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陝西省, 甘肅省, 新疆省)」, 『禹貢』 5-8·9, 1936, pp.145-151;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禹貢』 5-10, pp.33-36;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東三省)」, 『禹貢』 6-3·4, 1936, pp.93-103;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續, 廣西省)」, 『禹貢』 6-11, 1937, pp.33-35; 趙泉澄, 「清代地理沿革表(四川, 西康; 雲南, 貴州)」, 『禹貢』 7-1·2·3, pp.251-264.

85) 孫海波, 「周金地名小記」, 『禹貢』 7-6·7, 1937, pp.109-124.

편집 초기의 古史 연구와 마찬가지로 『禹貢』 후반부의 민족 및 변강 문제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여전히 세심한 고증의 문체를 가지고서 연혁자리 방면의 색채가 농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馮家昇의 「述東胡系之民族」이라는 글로, 여기서는 秦漢 시기에 기록된 烏桓과 鮮卑 자료에 대해 정리 및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禹貢』 제4권 이전의 서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⁸⁷⁾ 반면에 역사 이론에 관한 글은 『禹貢』에 발표된 총 700여 편의 글들 중에서 단지 連士昇의 「經濟與地理」(2-11)와 楊效增의 「地理與歷史的中心關係」(1-12) 두 편 정도 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듯 『禹貢』 잡지 전반에 걸친 세밀한 문헌 고증의 경향성은 주요 멤버 중 하나였던 史念海의 이후 회고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는 “『禹貢』 잡지에는 고증을 행하는 글들이 매우 많아서 乾嘉 시기의 盛況을 방불케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⁸⁸⁾

한편 『禹貢』 창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35년에 발기한 禹貢學會에서는 『禹貢討論集』이라는 것을 간행하기도 하였는데,⁸⁹⁾ 이는 『禹貢』의 전신으로서 여기에 발표된 논문들은 모두 고대 지리에 대한 세밀한 考辨과 관련이 깊다. 이를 봤을 때에도 『禹貢』이 단지 대중들을 상대로 애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해 간행한 성격의 잡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禹貢』 후반부에 가서는 비록 잡지의 편집 방향 내지는 관심사가 민족문제와 변강사에 관한 것으로 많이 이동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대 지리에 관한 연구는 멈추지 않았으며, 童書業으로 하여금 “古代地理專號”를 전담하여 편찬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禹貢』에서 고힐강이 쓴 글들을 보면 『尚書』에 관한 글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堯典」이 前漢武帝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담은 「從地理上證今本堯典爲漢人作」(2-5), 『偽孔傳』과 孔穎達의 『尚書正義』에 보이는 「禹貢」篇에 대한 분석 및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담은 「讀尚書禹貢篇之偽孔傳與孔氏正義」(7-1·2·3)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고힐강의 『尚書』에 대한 관심은 『禹貢』 잡지의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⁹⁰⁾

86) Schneider,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1971, p.274.

87) 馮家昇, 「述東胡系之民族」, 『禹貢』 3-8, 1935, pp.1-7.

88) 史念海, 「顧頽剛先生與禹貢學會」, 『中國歷史地理論叢』 3, 1993, p.14.

89) 「禹貢討論集介紹廣告」, 『禹貢』 1-5, 1934.

90) 孫皓·王江은 중국 고대 지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禹貢』 잡지는 사실상 ‘古史辨運動’의 연혁 지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힐강 본인이 ‘古史辨’으로부터 ‘古地辨’이라는 학술적 흥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의 객관적

실제 『禹貢』에 실린 글의 내용을 통해서 중국 지리연혁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필진들의 다양한 글들이 존재하며 『禹貢』이 학술적인 잡지로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이를 보다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도표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약 3년간 『禹貢』이 간행되는 동안에 발표된 글들 중 『禹貢』 활동이 끝난 이후로도 비교적 일관되게 역사지리학 방면에 종사했던 譚其驥, 馮家昇 두 主編과,⁹¹⁾ 이와 거의 동일하게 중국의 역사지리학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크게 기여한 史念海, 侯仁之 두 사람이 발표한 글들의 목록만을 추려보았다. 부록 1의 도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禹貢』 잡지의 성격이 변했다고 여겨지는 제4권 이후의 경우도 그 목차를 들여다보면 중국 지리 연혁사와 관련된 세밀한 논증이 중심이 되는 논문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간과한 채 『禹貢』을 단지 애국주의 讀物 내지는 후반부에 특히나 중심이 되는 변경 지역에 관한 연구물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고힐강을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연구들에서는 『禹貢』 잡지가 창간된 학술적 배경을 단지 1930~40년대 일제의 침략이라는 당시의 외부적 환경 요인하고만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다수의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禹貢』 창간호상에 기재된 「발간사」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인 1936년의 「禹貢學會募集基金啓」, 그리고 학회 내부에서만 발행한 「禹貢學會研究邊疆計劃書」 및 「本會三年來工作略述」, 「本會此後三年中工作計劃」 등 관련 내용을 모두 혼합해서 하나의 맥락 위에 놓고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위와 같은 ‘민족주의자’로서의 고힐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⁹²⁾ 뿐만 아니라 『禹貢』 잡

인 반응이라고 보기도 하였다(孫喆·王江, 「時代變局下知識分子對“致知”與“致用”的探索：從顧頡剛創辦『禹貢』半月刊談起」, 『中國邊疆史地研究』 19-2, 2009, p.141).

- 91) 『禹貢』이 정간된 이후에 譚其驥, 史念海, 侯仁之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禹貢學會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연혁지리 방면의 연구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다른 史學 분야의 연구에 주로 집중했다. 한편 중간에 발표된 문장이 가장 많았던 해인 1935년 말에는 譚其驥이 廣州 지역의 교수로 부임해 감에 따라 『禹貢』 관련 모든 직무를 사임하자, 馮家昇이 이어서 주편을 맡게 된다(許子豪, 「禹貢學會與『禹貢』半月刊在歷史地理學史中地位塑造的研究」, 2020, pp.26-27). 따라서 본고에서는 『禹貢』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주된 사례로서 위의 네 필진의 글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부록 1 참조]
- 92) 顧頡剛, 「禹貢學會研究邊疆計劃書」, 『史學史研究』 1, 1981, p.66; 顧頡剛, 「禹貢學會募集基金啓」, 『禹貢』 4-10, 1936, pp.1-2; 顧頡剛, 「本會此後三年中工

지의 主編이 제4권부터 바뀌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禹貢』 창간호부터 제4권 제12기까지는 고힐강과 譚其驥이 主編을 맡았고, 제5권 제1기부터는 譚其驥 대신 馮家昇이 主編을 맡아 『禹貢』 편집을 전담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간상의 편차로 인한 편집진의 차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내부 열람용의 일부 문건들만을 가지고서 고힐강을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의 결론과는 달리 고힐강이 ‘救國’의 필요성 하에서 『禹貢』 잡지 발간에 뛰어들었음에도 주변의 여타 ‘민족주의적’인 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구국’의 의제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다루어진다. 1930~40년대 항일전쟁 시기에 ‘구국’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그 당시 학문과 致用의 사이를 넘나들었던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 특히 傅斯年은 고힐강에 벼금갈 정도로 학문의 길을 고집했던 學人으로서, 정치와 학문의 분리 원칙이 엄격했던 고힐강의 모습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傅斯年은 고힐강에 보낸 편지에서 중국에는 오로지 한 개의 중국 민족만이 있을 뿐이므로 변강지역을 논할 때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⁹³⁾ 또한 역사상 중국의 강역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傅斯年은 1932년 『東北史剛』 제1권을 저술하여 동북지역이 인종적·역사적·지리적으로 이미 옛날부터 중국과 일체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의 중국 침략의 논리를 반박하고자 했다.⁹⁴⁾ 즉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그 관련 증거를 찾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 傅斯年이었다. 傅斯年이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 당시의 정치에 영합했던 것과는 달리,⁹⁵⁾ 고힐강은 그의 학술적인 입장을 끝까지 유지했다.⁹⁶⁾

민족의 기원과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고힐강은 중

作計劃」, 『禹貢』 7-1·2·3, 1937, p.13 등.

93) 傅斯年, 「致顧頡剛書」(1938), 『傅斯年全集』 第7卷, 湖南教育出版社, 2003, p.205; 傅斯年, 「致朱家驛、杭立武書」(1939), 『傅斯年全集』 第7卷, 2003, pp.206-207.

94) 김창규, 「傅斯年的 민족문제 이해와 ‘東北’ 인식」, 『역사학보』 193, 2007.

95) 『顧頡剛日記』 第5卷(下), 1945. 8. 28.字 記事, p.518; 『顧頡剛日記』 第5卷(下), 1945. 8. 31.字 記事, pp.520-521.

96) 顧頡剛·楊向奎, 「三皇考」, 『顧頡剛古史論文集』 卷2, p.23; 『顧頡剛日記』 第10卷(下), 1966. 1. 8.字 記事, p.394; 『顧頡剛日記』 第10卷(上), 1964. 1. 8.字 記事, p.6.

화민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부터 하나의 민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에는 원래 漢族이 없으며 한족은 문화적으로 통일된 여러 민족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다.⁹⁷⁾ 그는 중국인이 본래 黃帝의 자손이라는 기록은 나중에 꾸며낸 것이므로 마땅히 배척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배척한다고 절대로 민족의 자신감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역사에 빠져있는 것은 곧 헛된 자만 속에 사는 것과 다름없으며, 정확한 역사 사실 위에 서서 분투하고 理性에 기반한 민족정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⁹⁸⁾ 이는 목적이 앞선 致用의 학문은 결코 민족의 각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수도를 四川省의 重慶으로 옮기면서, 상당수 학자들도 사천성에 모이게 되었다.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족의 패망을 걱정하던 시기였으며 이곳에 모인 학자들도 자연히 大一統思想을 외치게 되었다. 그러나 고힐강은 문헌자료의 세밀한 분석과 비판에 기초하여 傳說 시기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기록된 사천지역과 중원의 관계를 단절시켰다.⁹⁹⁾ 그리하여 사천지역만의 독립적인 문화가 존재했음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요컨대 나중에 여러 민족이 합쳐져 하나의 中화민족이 되었지만, 그것이 본래부터 하나는 아니었다는 역사기록에 ‘충실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역사상 중국의 강역에 대한 고힐강의 입장을 살펴보자. 30년 대 초 이후 일본이 동북지역을 장악하게 되자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동북지역의 영토적 의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고힐강 역시 이때 당시 일본의 동북지역 침탈이 주요 계기가 되어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그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모욕과 국력의 쇠약함을 느끼면서, 漢唐 盛業의 재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조들의 遺土 역시 보존할 수 없다는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토로했다.¹⁰⁰⁾ 그리고 동북지역이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漢代와 唐代의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동북지역

97) 顧頡剛, 「編中國歷史之中心問題」, 顧洪 編, 『學術文化隨筆—顧頡剛』, 中國青年出版社, 1998.

98) 顧頡剛, 「蕃姓與漢姓」, 顧洪 編, 『學術文化隨筆—顧頡剛』, 中國青年出版社, 1998.

99) 顧頡剛, 「古代巴蜀與中原的關係說及其批判」, 1941年 5月 → 顧頡剛, 『論巴蜀與中原的關係』, 四川人民出版社, 1981에 所收.

100) 顧頡剛·史念海, 「緒論」『中國疆域沿革史』, 商務印書館, 2015, p.7.

이 원래부터 중국과 하나였다는 입장은 고집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대의 여타 ‘민족주의’ 사학자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그는 증거 자료가 없는 夏·商·周·春秋시대에 대해서는 동북지역 자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戰國 시대에 들어 燕이 東胡와 山戎 등과 접경하고 있었는데, 그 영역은 지금의 宣化에서 漉州라고 하는 사실, 또 秦이 東胡를 공격하면서 千里를 개척하였고 장성을 朝陽에서 襄平까지 세웠으며 이 지역에 上谷郡, 漁陽郡, 右北平郡, 遼西郡, 遼東郡을 설치했다는 정도를 기술했을 뿐이었다. 그 이후에도 이곳에 都護府를 설치하였지만 특히 元代 이후 이곳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서술하였다.¹⁰¹⁾ 반면 그는 역사상 영토라는 것이 늘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역대 疆域의 변화를 검토하여 영토를 넓히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과, 한 치의 山河도 가벼이 적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었다.¹⁰²⁾ 즉 영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무조건 가장 강대했던 시대를 과장하기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고 이를 그대로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고힐강을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주된 근거로서 『禹貢』 이외에도 고힐강이 편찬한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 등을 예시로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와 같은 교과서가 고힐강의 학술 활동을 대표하는 『古史辨』과 같은 순수 학술 서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민족주의자’로서의 고힐강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은 『禹貢』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실제 내용이 아닌 일면만을 보고서 그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¹⁰³⁾ 고힐강은 1923년에 쓴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에서 漢族과 非漢族 집단을 아우름으로써 중국 민족에 대한 일원적 기원설을 부정하였다.¹⁰⁴⁾ 이와 같은 고힐강의 학문적 입장은 이후로도 일관되게 이어졌다. 예를 들어 1923년에 고힐강은 「三皇考」에서 다음과 같이 三皇五帝를 ‘전설’로 규정하였다.

우리 민족의 자신감은 정말 三皇五帝 위에 세워진 것인가?

101) 顧頡剛·史念海, 『中國疆域沿革史』, 2015, p.51.

102) 顧頡剛·史念海, 「緒論」『中國疆域沿革史』, 2015, p.7.

103)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p.12.

104) 顧頡剛·王重麒 共編,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上冊, 『顧頡剛古史論文集』卷 12, p.10.

하지만 내가 의혹이 드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언제나 “炎黃의 신명스러운 후손”, “炎黃은 하늘의 신령이므로 실로 그에게 의지해야 한다”면서 왜 우리 漢族은 ‘쟁반 하나의 모래알’과 같아 어떻게 해도 단결할 수가 없단 말인가? …… 세상 일에 있어 ‘수많은 거짓말도 하나의 진실에 대항할 수 없다.’ …… 우리의 민족 자신감은 마땅히 理性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¹⁰⁵⁾

이어서 1932년 『古史辨』 제4책에서도 이와 관련된 고힐강의 일관된 입장은 엿볼 수가 있다.

帝王 계통에 대한 이런 거짓말을 빌어 인심을 수습하고 통일을 호소하는 것은 분명히 유력한 정치적 작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법이 후세에 전해지면서 바로 역사 속의 쉽게 풀리지 않는 ‘三皇五帝’의 고질병[癥瘕]이 되어 버리니, 영원히 진짜 史實의 장애가 될 것이다. …… 역사의 真想에 있어 우리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재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에 있으면서 옛사람을 가지고 둘러대서는 안 된다.¹⁰⁶⁾

중국 민족의 同一起源說을 회의한 그로서는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三皇五帝를 가지고 동일 기원을 논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의 이런 입장은 국민당 中央黨部 상무위원 戴季陶의 발언대로 三皇五帝를 민족 단결의 구호로 삼으려는 南京 국민정부의 입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고힐강이 편찬한 교과서는 출판금지 되었다.¹⁰⁷⁾ 고힐강이 편찬한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는 1923년 출판된 후 출

105) 顧頡剛·楊向奎, 「三皇考」, 『顧頡剛古史論文集』 卷2, pp.22-23, “我們民族的自信力真是建築在三皇、五帝上的嗎？…… 然而使我疑惑的，我們口裏常常說是“炎、黃神明之胄”，又常常說“炎、黃在天之靈實式憑之”，為什麼我們這漢族老像“一盤散沙”，無論如何團結不起來呢？…… 世界上事，“千虛不敵一實”。…… 我們的民族自信力應當建立於理性上。”

106) 『古史辨』 第4冊「顧序」, pp.6-7, “借了這種帝王系統的謠話來收拾人心，號召統一，確是一種極有力的政治作用。但這種說法傳到了後世，便成了歷史上不易消釋的“三皇五帝”的癥瘕，永遠做眞史實的障礙。…… 至於歷史上的真相，我們研究學問的，在現在科學昌明之世，決不該再替古人圓謊了。”

107) 顧頡剛 著, 김병준 譯, 「나는 어떻게 ‘고사변’을 편찬했는가?」, 『고사변 자서』, 2006, p.199.

판금지될 때까지 25만 부가 발행될 정도로 상당한 판매량을 자랑하였다.¹⁰⁸⁾ 그 자신도 교과서 편찬 작업을 통해 자신의 학술적 입장 가운데 핵심인 ‘누층적으로 조성되는 중국고대사(層累地造成的中國古史, 이하 層累說로 약칭)’설¹⁰⁹⁾을 발견하였고, 이 교과서를 자신의 역사관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저술로 인정할 만큼 중시하고 있었다.¹¹⁰⁾ 고힐강이 이처럼 중시한 교과서의 출판금지 조치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국민정부와 고힐강 사이의 민족 문제 인식 차이가 빚어낸 사실상의 ‘文子獄’이었다.¹¹¹⁾

그런데 역사 교과서 방면에서의 고힐강에 대한 기준 연구의 비판은, 위와 같은 측면뿐 아니라 실제 내용을 보지 않고 단지 「總說」과 같은 몇몇 글들을 위주로 분석했을 뿐이라는 문제와도 더불어, 중국 역사 속에서 漢族이 중심이 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를 ‘민족주의자’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즉 중국 역사를 구성하는 7개의 민족들 가운데 華族으로 지칭되는 漢族의 위치를 중심에 놓으면서, 중국 역사의 ‘주요 구성원’인 이들의 영향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²⁾ 이런 漢族 중심의 동화의 구도는 다른 사례들에서도 여럿 확인된다면서, 고힐강이 漢族과 非漢族 모두를 ‘민족’으로 지칭하며 漢族과 非漢族이 결

108) 顧潮 編著, 『顧頡剛年譜』, 1993, p.172.

109) ‘누층적으로 조성되는 중국고대사’설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째는, 시대가 뒤로 내려갈수록 전설 속 고대사의 기간은 점점 길어진다는 것이다. 周代 사람의 생각 속에서 가장 옛날 사람은 禹였지만, 孔子 시대에는 堯·舜이 더해졌고, 戰國 시대에는 黃帝·神農이 더해졌으며, 秦代에는 三皇이, 漢代에는 盤古가 각각 덧붙여졌는데, 마치 ‘장작을 쌓듯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차곡차곡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대가 뒤로 내려갈수록 전설 속 중심인물은 더욱 위대해진다는 것이다. 舜의 경우, 공자 시기에는 단지 ‘無爲之治’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聖君이었는데, 『堯典』에 오면 나라 일에 앞서 집안을 먼저 평안히 다스린 道德君子로서의 聖人이 되고, 孟子 시기에는 孝子의 이상적 모범이라는 모습이 덧붙여졌다. 셋째는, 원래 사건의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이 전설 속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東周 시기의 東周史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국 시기의 동주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며, 夏商 시기의 夏商史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동주 시기의 하상사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顧頡剛 著, 김병준 譯, 「解題: 『고사변』 자서와 고힐강」, 『고사변 자서』, 2006, pp.221-222).

110) 『古史辨』 第1冊 「自序」, pp.51-52.

111) 顧頡剛 著, 김병준 譯, 「나는 어떻게 ‘고사변’을 편찬했는가?」, 『고사변 자서』, 2006, p.200.

112) 顧頡剛·王重麒 共編, 『現代初中敎科書本國史』 上冊, 『顧頡剛古史論文集』 卷2, p.10.

합된 중국 민족을 사실상의 다민족적 구성체로 인식하였음에도, 그가 중국고대사 연구에서 설정한 중국 민족의 구도는 漢族의 위상과 非漢族의 그것 사이에서 비대칭성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¹¹³⁾ 하지만 漢族과 非漢族의 비대칭성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당연한 사실로서, 이를 가지고서 고힐강을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또한 고힐강은 과거에 중국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살던 당시의 중국과 과거 사실 양자 간에는 철저히 구분 지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비판뿐 아니라 고힐강은 三皇五帝를 통해 민족 단결을 추진하려는 국민정부의 입장을 여전히 비판하고 있지만, 적어도 민족 단결의 당위와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만큼은 국민정부가 설정한 中華民族, 즉 國族 창출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¹¹⁴⁾ 민족을 둘러싸고, 분명 몇몇 측면에서는 고힐강과 국민정부의 인식이 호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힐강의 학문적인 입장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고힐강의 학문적 입장은 본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듯이 내내 바뀌지 않았으며, 이는 고힐강이 역사교과서 출판금지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기존의 내용과는 다르게 사실에 기반한 역사를 서술했다는 것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고힐강의 학문적 입장이 ‘민족주의적’ 정서에 따라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禹貢』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처럼 고힐강을 단순히 애국주의적인 또는 민족주의적인 인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는 정확한 사실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야말로 ‘구국’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었

113)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pp.19-20. 하주형은 고힐강이 역사 교과서 속에서 漢族 중심의 동화의 구도를 설명한 사례들로, 唐朝의 찬란한 문명을 ‘여러 민족들과 정신상의 새로운 혈액을 흡수’한 결과로 보면서도 그 기반인 隋·唐 통일 제국의 탄생을 여러 이민족들을 동화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든지(『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 上冊, pp.19-20), 몽골족을 몰아내고明朝가 성립되는 과정을 ‘중국 민족’을 주체로 한 또 다른 제국의 구축 과정으로 설명한다든지(『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 上冊, pp.20-21), 또는 苗族에 대한 ‘改土歸流’를 華族과의 동화의 관점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 上冊, p.13).

114)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2009, pp.26-27.

다. 실제로 그는 ‘국망’의 위기의식 속에서 단지 학문에만 파묻혀 있지 않고 여타 지식인들과 함께 『禹貢』이라는 역사지리학 잡지를 발간하는 등 학자로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理性’에 대한 추구라는 학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위기에 처하였으니 중국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금의 중국 영토는 모두 예전부터 중국의 것이었다고 하는 대다수의 ‘민족주의적’인 사학자들과는 엄연히 다른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고힐강의 모습을 두고서 그가 단지 현실과 밀접하게 연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禹貢』의 실질은 보지 않은 채 ‘국망’이라는 당시의 현실과 고힐강의 편집 의도를 곧바로 연결 짓는 것은 현대의 관점에서 고힐강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려는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고힐강의 학술과 현실 참여 양자 간에 분리되어 이해된 측면 중 ‘민족주의자’로서의 고힐강이라는 비판에 대해 『禹貢』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순수 학자’ 고힐강의 면모를 잘 드러내 주는 1920년대 이후의 연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중국고대사 연구자로서 고힐강의 모습을 언급할 때 이번에는 ‘매국노’라고 하는 또 다른 비판에 맞닥뜨린다. 이에 대해서는 1920년대부터 말년까지 고힐강이 지속적으로 천착했던 『尚書』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尙書』 연구와 ‘救國’

1) 國粹主義와 ‘信古’派의 비판

1923년 고힐강은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속에서 ‘누충설’을 발표함으로써 전통적 역사 관념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은 물론, 대대적인 古代史 논쟁에 불을 지피게 된다. 고힐강이 제시한 일련의 고대사 이론과 논쟁의 결과는 1926년 『古史辨』 第1冊에 묶여 출판되었다. 고힐강은 『古史辨』에서 『尙書』의 篇章들에 대해 가장 초기의 論斷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고힐강의 학문은 처음 經學에서 비롯하였다.¹¹⁵⁾ 하지만 고힐강은 경학의 텍스트 또한 고대사 연구의 史料로써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고힐강이 평생에 걸쳐 탐구하고자 한 것은 今文家와 古文家가 활동한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조건을 추적하는 일이었다.¹¹⁶⁾ 경학에 대한 고힐강의 이와 같은 관심은 1954년 이후 『資治通鑑』의 總敎, 『二十五史』와 『清史稿』의 표점 작업 등을 담당하고 『尙書』學에 집중함으로써 만년 까지도 지속되었다.

고힐강의 고대사 연구 중에서도 『尙書』에 관한 연구는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尙書』는 堯·舜·禹의 道統을 제기하는 경학의 최대 보루로서, 고힐강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지닌 ‘경학의 偶像’을 타파하고자 하였다.¹¹⁷⁾ 게다가 고힐강의 『尙書』연구는 1920년 대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졌던 것으로서, 고대사 연구 초기

115) 고힐강의 학문적 입장은 北京大學豫科 시절 章太炎이 연 國學會의 講學을 들으면서 今文學과 古文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때 今文家의 通經致用을 공격하는 章太炎을 죽여,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하기로 다짐한다(『古史辨』 第1冊 「自序」, p.23). 그러나 1915년 병으로 휴학하게 되었을 때, 『新學偽經考』·『孔子改制考』 등 康有爲의 저술을 접하면서 고힐강은 기존 上古史 관념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고, 今文派에게도 유용한 입각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古史辨』 第1冊 「自序」, p.26). 그러나 자신의 학문적 목표를 고대사 연구에 두고 나서부터 今文經이나 古文經의 어느 한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이 모두를 사료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116) 1920년대 막바지에 고힐강은 “나는 참으로 ‘中古期의 上古史說’의 專門家가 되기를 희망하고, 거짓된 上古史를 파괴하고 참된 中古史를 건설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하였다(『古史辨』 第2冊 「自序」, p.6).

117) 『古史辨』 第1冊 「自序」, p.50.

부터 그의 머릿속에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자리하고 있었다.¹¹⁸⁾

『尙書』에 관한 고힐강의 연구는 일찍이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26년 『古史辨』 제1책이 출간될 당시에도 『尙書』에 관해 고힐강이 처음 제기한 의론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대체로는 고힐강의 견해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그와는 다른 의견을 제기하면서 『古史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古史辨』 출간 이후 가장 먼저 비판을 한 것은 劉掞藜, 胡董人, 柳詒徵 등이었다. 20년대 ‘古史辨’ 초기에 고힐강의 『尙書』 연구는 주로 『尙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堯·舜·禹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고힐강 반대 주자들 또한 이에 관해서 가장 치열하게 반격해 들어왔다. 학계의 첫 번째 강렬한 반박에 대한 고힐강의 공식적인 대응은 1923년 5월 6일에 발표한 「與錢玄同論古史書」였다. 고힐강의 중국 고대사 연구방법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누총설’ 또한 여기서 처음 제기되었다. 고힐강 반대 주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 책이 “聖人の 道를 비방하고 법도가 없다”¹¹⁹⁾는 것과 “禹는 한 마리의 벌레”¹²⁰⁾일 뿐이라는 고힐강의 초기 주장에 대한 확대 해석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힐강이 ‘禹’자 해석으로부터 도출한 가정에 대해서 劉掞藜가 비판했고,¹²¹⁾ 柳詒徵은 고힐강이 『說文』의 義例를 모른다면서 비웃

118) 劉起釤, 「顧頡剛先生與『尙書』研究」, 1984, pp.220-221.

119) 이 주장은 사실 山東省 參議員 王鴻一(이름은 朝俊, 일찍이 산동교육청장을 역임하였으며, 1930년에 사망했다: 필자 주)이 제안한 것으로, 정확하게는 『古史辨』이 아닌 이와 동 시기에 편찬된 『中學用本國史敎科書』라는 책을 겨냥하여 한 말이다. 이후 梁漱溟이 고힐강에게 편지를 보내, 이 제안은 고힐강의 북경대학 친구인 陳亞三이 써준 것이라고 알려주었다(『顧頡剛日記』第2卷(上), 1929. 9. 15.字 記事, p.324). 戴季陶는 이 제안을 이용해 글을 지어, “중국이 일치단결 할 수 있는 까닭은 인민들 스스로가 三皇五帝와 같은 하나의 조상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인민의 일치단결의 요구를 해체시키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顧頡剛 著, 김병준 譯, 「나는 어떻게 ‘고사변’을 편찬했는가?」, 『고사변 자서』, 2006, p.199). 하지만 “聖人の 道를 비방했다”는 고힐강의 의고작업에 대한 비난은 비단 위의 몇 사람이나 특정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20) “至於禹從何來？……我以為都是從九鼎上來的。禹，『說文』云，‘蟲也，從內，象形。’內，『說文』云，‘獸足蹠地也。’以蟲而有足蹠地，大約是蜥蜴之類。我以為禹或是九鼎上鑄的一種動物，當時鑄鼎象物，奇怪的形狀一定很多，禹是鼎上動物的最有力者；或者有敷土的樣子，所以就算他是開天辟地的人。(伯祥雲，禹或卽是龍，大禹治水的傳說與水神祀龍王事恐相類。)流傳到後來，就成了眞的人王了。”(『古史辨』第1冊 p.78)

121) 劉掞藜, 「讀顧頡剛君“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的疑問」, 『顧頡剛古史論文集』卷1, p.208.

기도 하였다.¹²²⁾ 이에 대해 고힐강은 1923년 劉惔藜에 대한 답변에서 『詩經』과 『尚書』에 기록된 禹에 관한 9가지의 용례를 모두 제시하며, “禹가 后稷 이전의 경작의 人王”이라는 것은 周代의 관념일 뿐인데 劉惔藜는 서로 다른 『尚書』『堯典』과 『詩經』『閟宮』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 생각해서 禹를 神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禹에게는 ‘敷土’, ‘甸山’, ‘治水’ 등의 공적이 있다”는 관념에 대해서도 하물며 현대에도 淮河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는 일 하나에도 수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서 제대로 하기가 힘든데, 당시 전국의 산천을 통일하는 일을 단 몇 년 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禹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¹²³⁾ 柳詒徵에 대한 답변에서는 “禹가 벌레”라 함은 단순히 벌레가 아닌 동물의 총칭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¹²⁴⁾ 許慎의 『說文』과 清儒의 저술을 먼저 깊이 읽어야 하는데 근래에는 ‘의고’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두 책은 단지 古史를 연구하기 위한 부차 자료일 뿐, 문자를 통해 古史를 연구하려면 甲骨, 金文 등의 자료를 제일 자료로 놓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고힐강은 “禹는 남방 민족의 신화 속 인물”이라는 자신의 초기 주장을 이후에 가서 조금 수정하기도 했지만,¹²⁵⁾ “禹가 벌레”라는 주장의 큰 틀은 시종일관 유지했다.¹²⁶⁾ 한편 고힐강의 『尚書』 연구와 관련해서 당시 신문화운동 진영

122) 柳詒徵, 「論以說文證史必先知說文之誼例」, 『顧頡剛古史論文集』 卷1, p.326.

123) 『古史辨』 第1冊 p.111.

124) 顧頡剛, 「答柳翼謀先生」, 『顧頡剛古史論文集』 卷1, p.320.

125) 이 밖에도 고힐강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때 이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장 위의 “禹가 벌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의 동료인 錢玄同이 그의 가설 중 하나인 글자의 語義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를 즉각 수정하여 곧바로 폐기했다(『古史辨』 第1冊 pp.226-227). 또한 잘못된 문장이 『古史辨』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까지 원문에 집어넣어 그대로 다시 실기도 했다(『古史辨』 第2冊 「自序」 p.3). 뿐만 아니라 「孟姜女故事的轉變」이란 글에서 고힐강은 杞梁妻가 장성을 울음으로 무너뜨렸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틀린 곳이 있음을 발견하자 이를 바로 수정했다(顧頡剛, 『孟姜女故事研究及其他』, 商務印書館, 2014, p.41). 한편 1950년대에는 항일전쟁 시기에 간행했던 『漢代學術史略』이란 저서의 이름을 바꾸어 『秦漢的方士與儒生』이란 이름으로 재출판하면서, 서문에서 자신의 저서의 한계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顧頡剛, 『秦漢的方士與儒生』, 上海古籍出版社, 2005, pp.6-7).

126) 1937년 고힐강은 『禹貢』半月刊 상에 발표한 「九州之戎與戎禹」라는 글에서 “禹는 남방 민족의 신화 속 인물”이라는 초기의 주장을 버리고 西方에서禹의 기원을 찾는 것으로 입장을 약간 바꾸었다. 그의 제자 중 하나인

과 대척점에 서 있던 ‘學衡派’의 陸懋德은 근래에 의고의 기풍이 너무 심하다며, “『尚書』의 「堯典」, 「禹貢」 등이 偽作일 리 없으며, 중국의 역사는 夏代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¹²⁷⁾ 또 다른 ‘학형파’의 한 사람인 劉離明은 六經의 眞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左傳』이나 『尚書』에 등장하는 「周官」 등은 분명히 위작이 아닌데도 요새 학자들이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고힐강에 대한 첫 번째 비판에 이어 두 번째 비판은 1950년대에 불어 닥친 胡適 비판의 시기였다. 비판은 의고학파의 ‘偽造’ 논리가 유물사관에서 주장하는 인류의 필연적 발전 법칙 특히 원시 공산사회의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호적의 ‘실험주의(Pragmatism)’와 같이 그 계급적 본질이 자산계급 사학이라는 사실이 핵심이었다.¹²⁸⁾ 그 저간에는 역시 중국의 영광스럽고 유구한 역사에 대한 향수가 깔려 있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사학자 郭沫若의 古史觀은 민족학 이론과 신화·전설 互證의 방법을 통해서 세워진 것으로, 고힐강 등의 의고학파와는 결과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郭沫若是 ‘禪讓制’를 긍정했으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민족학에서 말하는 氏族民主制라고 주장했다.¹²⁹⁾ 그에 반해 고힐강은 ‘선양제’는 단지 전국 시대 墨家가 자신들의 主義를 선전하기 위해서 “위조한 고사”이며, ‘선양설’은 戰國思想史의 일부분으로 上古社會史에는 이러한 ‘선양설’에 반영된 ‘선양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¹³⁰⁾ 결과적으로 고힐강은 마르크스주의 사학자들이 ‘선양제’를 원시사회 민주제로 보는 관점에 반대함으로써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마르크스주의 사학에 반대했다. 「禪讓傳說起于墨家考」라는 글을 발표한 이후, 고힐강은 또 다른 글에서 유물사

童書業은 이 글의 跋語 부문에서 “禹名從‘蟲’，亦卽‘句龍’.”이라고 했다(『古史辨』第7冊 pp.561-572). 결국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고힐강은 그의 말년까지도 일종의 토템으로서의禹에 관한 古史를 증명하고자 했던 초기의 입장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다.

- 127) 陸懋德, 「尚書堯典篇時代之研究」, 『學衡』 第43期, 1925, p.4, p.9, p.10.
128) 丁則良, 「對胡適的疑古論的批判」, 『人文科學學報』, 1955.
129) 呂振羽는 “那些散見於各種記載中的神話傳說的來源, 我們雖不敢完全確定, 但它們能代表曆史上一個時代的真實意義, 是我們敢於確定的.”라고 했으며, 그는 또한 소위 ‘선양제’란 원시씨족사회의 ‘二頭軍務總司令官’ 제도의 선거 방식으로, “不過是仗神話傳說保留下來的, 古代中國氏族社會民主制度的一個影子.”라고 보았다(呂振羽, 『史前期中國社會研究』, 北平人文書店, 1934, p.82, p.165).
130) 顧頡剛, 「禪讓傳說起于墨家考」, 『顧頡剛古史論文集』 卷1, p.424.

관의 고대사 관념에 대한 반박을 지속했는데, 1937년 원래 쓴 문장을 다소 고쳐서 재발표한 「『潛夫論』中的五德系統」이란 글에서 그는 마르크스 주의 사학자들이 의거하는 민족학 이론과 사회 형태 演變의 학설은 漢代의 五德終始說에 비견할만하며, 그들은 僞史를 제조하는 학자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¹³¹⁾ 또한 고힐강은 시종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여 비판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유물사관에 대해 비판을 가하던 시기 에 그의 제자 童書業은 「評『史前期中國社會研究』」라는 한 편의 글을 내놓아,呂振羽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¹³²⁾ 이때 童書業은 고힐강의 「禪讓傳說起于墨家考」를呂振羽를 반박하기 위한 참고문헌으로 열거했는데, 이를 통해 고힐강의 입으로 말한 “유물사관을 고취”하는 사람이 郭沫若임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¹³³⁾ 고힐강과 郭沫若 두 사람의 史觀을 평가하는 데는 ‘文化自信의 重建’이라는 중국 근대사상사에서 중요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자리한다.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중국이 장래에 서방 열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역사 위에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이 역사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미래에 다른 나라들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에 고힐강은 미래에 중국이 강대해질 수 있는가는 역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며, 단지 현재에 단단히 발을 붙이면 미래 역시도 장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¹³⁴⁾

고힐강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고힐강의 ‘의고’를 전면적으로 반박할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할 만큼 많아진 결과 시작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판 모두 근본적으로는 옛 전통과 역사를 파괴하는 ‘의고’를 겨냥했던 것이지만, 그때에는 고힐강의 古書 및 고대사에 대한 ‘의고’를 전체적으로 반박할 구체적 자료와 논리가 없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고힐강의 ‘의고’를 전면적으로 반박할 자료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할 만큼 많아졌고 그 결과 본격적인 고힐강 비판이 시작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李學勤의 「走出疑古時代」라는 글이었다.¹³⁵⁾ 李學勤은 “王國維가 말한 漢代 이래로

131) 呂思勉·童書業 編著, 『古史辨』 第7冊 上編, pp.311–312.

132) 童丕繩, 「評『史前期中國社會研究』」, 圖書展望, 1937.

133) 程鵬宇, 「顧頡剛與唯物史觀派學者在古史觀上的分歧」, 『雲夢學刊』 38-1, 2017, p.78.

134) 程鵬宇, 「顧頡剛與唯物史觀派學者在古史觀上的分歧」, 2017, p.79.

135) 李學勤, 『走出疑古時代』, 長春出版社, 2007.

중국 학술사상의 최대 발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孔子壁中書’이고, 다른 하나는 ‘汲冢書’이다. 清華簡 발견의 의의는 이 두 차례의 발견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제3차 중대발견’이라 할 만하다. 이 清華簡 중에는 20편 정도의 『古文尚書』의 내용이 있는데, 傳世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佚篇들이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古文尚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¹³⁶⁾ 기존에 孔安國의 『尚書』에 대한 傳이 진짜로 위작임을 다시 한번 밝혀줌과 동시에, 그전까지 문헌상으로는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었던 ‘진정한’ 『古文尚書』의 면모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李學勤 등은 『偽孔傳』이 비록 위작이긴 하지만 그러한 고서 중에는 채택할 만한 좋은 의견도 많은데 의고학파가 이를 모두 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며,¹³⁷⁾ 최근 출토자료를 통한 고대사 연구는 孔安國 등의 漢晉 시기 학자들이 先秦의 고서들을 정리하고 이를 流傳할 때 어떤 복잡한 문제들에 부딪혔을지, 얼마나 힘든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대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종종 결함들과 실수들은 또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등을 체득할 수 있다면서,¹³⁸⁾ 고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李學勤은 결과적으로 “의고사조는 고서에 대한 한 차례의 大反思이다. 오늘날 우리는 응당 의고의 한계에서 벗어나 고서에 대한 두 번째의 대반성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담한 주장을 제기했다.¹³⁹⁾

지금까지 고힐강의 『尚書』 연구를 둘러싸고 동시대로부터 비교적 최근 까지 근 100여 년간 이어져 온 세 차례의 비판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이 세 차례 공격의 공통점은 고힐강을 모두 ‘반민족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대를 옮겨와서 李學勤으로 대표되는 근래의 ‘信古派’의 경우 고힐강에 대한 비판의 논점들은 무엇이며, ‘의고파’와의 논쟁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疑古’에 대한 오해

136) 李學勤, 「再證傳世『尚書』確系偽本」, 『清華大學新聞網』, 2013.

137) 劉國忠, 『走近清華簡』, 高等教育出版社, 2011, p.107.

138) 李學勤, 『走出疑古時代』, 2007, p.221.

139) 李學勤, 『走出疑古時代』, 2007, pp.221-222.

고힐강의 ‘의고’는 단순히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방법에 해당함에도 지난 100여 년간 고힐강에 대한 비판은 중국의 지식계에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왔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疑古’와 ‘信古’파의 지리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李學勤의 「走出疑古時代」라는 글 이후로 지금까지도 ‘의고’와 ‘신고’의 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출토자료가 급증함에 따라 학계에서도 ‘신고’파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¹⁴⁰⁾ 이에 본절에서는 ‘신고’파가 ‘의고’파를 어떠한 논점에서 비판했는지를 살펴보고, 근 100년 간의 ‘의고’와 ‘신고’파 사이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우선 李學勤으로 대표되는 ‘신고’파 측에서는 최근에 출토문헌이 증가함에 따라 ‘의고’의 방법에 의한 고힐강의 결론이 대부분 틀렸다고 주장한다. 李學勤의 학설은 한마디로 “의고시대를 벗어나자[走出疑古時代]”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의고 일파의 辨偽는 고서를 가지고서 고서를 논함으로써 문헌상의 학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 갇혀서는 중국고대사에 대한重建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¹⁴¹⁾ ‘의고’파에 대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근래의 자료는 지하에서 출토된 古文獻이 중심이 된다. 최근 출토된 簡帛 자료 속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헌뿐만 아니라, 現傳하는 古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73년 湖南省 長沙 馬王堆 漢墓에서 『老子』와 『周易』이 발견된 후, 1993년에는 湖北省 荊門 郭店楚墓에서도 『老子』가 출토되었고, 1994년 발견된 上海博物館所藏 楚簡에는 『周易』이 포함되어 있었다. 『禮記』의 緇衣篇과 동일한 기록이 상해박물관 소장 초간에서 확인되었으며, 『孫子』, 『晏子春秋』, 『文子』, 『尉繚子』, 『六韜』가 山東省 臨沂 銀雀山 漢墓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마왕퇴 한묘와 은작산 한묘는 前漢 초중기의 무덤이며, 곽점초간과 상해박물관소장 초간은 기원전 3세기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문헌의 저작 시대를 적어도 전한 중기 이전, 특히 『老子』와 『周易』, 『禮記』는 戰國 시대 중기 이전으

140) 林沄, 「真該走出疑古時代嗎?: 對當前中國古典學取向的看法」, 『史學集刊』 3, 2007.

141) 李學勤, 『走出疑古時代』, 2007, pp.219-221; 呂廟軍·李學勤, 「重寫中國學術史何以可能?: 關於“出土文獻與古史重建”問題的對話」, 『歷史教學問題』 4, 2015, p.14.

로 소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헌의 경우도 전래 문헌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長沙 子彈庫帛書의 내용은 『管子』, 『呂氏春秋』, 『禮記』 속의 月令 관련 내용과 유사하다. ‘의고’파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고문헌의 출토가 곧 ‘의고’파의 논설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라고 여겼다.¹⁴²⁾

물론 고힐강의 ‘의고’에 일정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에 고힐강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린 결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힐강의 고서 辨僞의 결론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니었다. 『老子』를 戰國末 혹은 漢初로 추정했던 것은 최근 郭店楚簡本 『老子』에 의해 부정되었다. 그러나 『史記』에 기록된 것처럼 노자라는 인물 관련 전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고힐강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새로운 출토자료에 의해서 고힐강의 결론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禹의 전설이 서주 중기가 아니라 더 이른 시기일 것이라는 점, 夏와 禹의 관계에 대한 전설은 전국시대 이전에 이미 크게 유행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서주 중기 또는 말기보다 더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점, 治水 전설은 전국시대水利工程이 크게 흥한 사회적 배경이 고대사 전설상에 반영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서주시기에 이미 관련 전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禪讓說은 일찍이 孟子 이전이나 혹은 동 시기에 儒家 안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었으며 어떤 학파의 목적이나 지향만을 위한 독창적인 발명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¹⁴³⁾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생겨난 결론의 문제점을 가지고 고힐강의 방법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물며 大禹 전설과 관련된 고힐강의 연구의 틀은 단지 누층적 시간의 순서에서 약간의 수정만이 필요할 뿐, 그의 전체 大禹 연구의 틀 자체를 동요시키지는 못한다.¹⁴⁴⁾ 또한 출토자료 덕분

142) 김병준, 「고힐강의 삶과 학문세계」, 2009, pp.176-177.

143) 馬竹君, 「顧頡剛“層累說”的再審視：以大禹傳說研究為中心」, 『民俗研究』 3, 2018, p.96.

144) 고힐강이 「鯀禹的傳說」(1939)에서 大禹 전설과 관련하여 내린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鯀, 禹는 天神에서 偉人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음. ② 禹의 神職은 山川의 社神을 主領하는 것임. ③ 鯀, 禹의 治水 전설은 본래 홍수를 막고, 토지를 배치하며[布放], 山川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 후대에 전국시대의 혼란으로 인해 제방을 쌓고, 막힌 물을 터서 통하게 하며[疏導], 산을 벌목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④ 鯀, 禹 전설이 유래한 곳은 서방九州의 戎 지역임. ⑤ 鯀, 禹는 원래 모두 독립적인 인물인데, 墨家의 尚

에 종래 그 진위가 의심스러웠던 것들을 정식 사료로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정당한 사료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사실 출토유물이 고대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작 의고학파가 지적한 문제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예컨대 고힐강은 禹가 서주 시기까지 神性을 띠고 있었다고 보았는데, 현재까지 이를 반박하는 출토 기록은 찾을 수 없다. 大禹治水의 전설이 확인되었다는 金文도 우와 관련된 전설이 서주 중기에 확인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¹⁴⁵⁾ 또 四川 지역에서 중원 청동기 문화에 버금가는 청동 문화가 확인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지역의 주인공을 黃帝·顓頊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연결시킬 수 없다는 고힐강의 주장은 여전히 타당하다. 또 馬王堆 와 郭店楚簡, 그리고 上海博物館 楚簡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승 서적들의 저작 시기가 전국시대 중기까지 소급되었으며 동시에 해당 서적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고힐강을 비롯한 의고학파에 의해 고증된 저작 시기와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신고’파 측에서는 華夏族의 우수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면서 고힐강에 대해 ‘비애국적’이라든가, 그가 전통을 무시했다는 등의 평가를 제시한다. 李學勤의 “의고시대를 벗어나자”라는 주장은 馮友蘭의 ‘釋古’에 대한 주장에 의거하는 듯 보이는데,¹⁴⁶⁾ 이것은 사실 중국 사학

賢·禪讓說을 매개로 하여 堯, 舜 등과 관련이 있게 된 것임.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③번과 ⑤번만이 약간의 수정 가능성성이 있을 뿐이다. ③번의 경우 西周 중기의 청동 명문에 쓰인 ‘濬川’의 ‘濬’자를 ‘通’으로 읽으면 ‘疏決大川’의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朱鳳瀚, 「樊公盨銘文初釋」『中國歷史文物』6, 2002, p.29), 大禹 전설이 墨家에 의해 시작된다는 고힐강의 가설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⑤번의 경우 새롭게 출토된 『唐虞之道』, 『子羔』, 『容成氏』 등은 모두 선양설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선양설은 고힐강의 가정보다 더 이를 기원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馬竹君, 「顧頡剛“層累說”的再審視: 以大禹傳說研究為中心」, 2018, pp.94-96).

145) 2002년 북경 保利博物館에서는 홍콩 골동품 시장에서 서주 중기의 청동기 를 구입하였다. 그 안에는 모두 98자의 금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天命禹敷土, 隨山浚川, 乃差地設征……”로 시작한다. 天命이라는 글귀는 서주 초기부터 금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지만, 大禹治水의 전설이 서주 시기 1차 자료인 금문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 때문에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곧 禹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와 관련된 치수 설화의 기원이 서주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하다(顧頡剛 著, 김병준 譯, 「역자 서문」, 『고사변 자서』, 2006, p.3).

146) 『古史辨』 第6冊 p.1.

계의 세 단계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명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李學勤의 바람 내지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81년에 이미 중국 문명의 형성은 商代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고고학상으로는 이미 殷墟 商文化에 비해 이른 시기의 二里崗 商文化가 발견되었으며, 또한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의 二里頭 문화 역시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전개되는 중국 문명의 형성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 학자들은 중국 문명의 형성을 夏代에 성립된 것으로까지 보고 있다. 하지만 李學勤은 하대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화문명은 응당 黃帝까지 소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의 이러한 생각을 대표하는 문장이 바로 1993년에 발표한 「古史、考古學與炎黃二帝」이다. 여기서 李學勤은 「帝繫」에 근거하고, 『竹書紀年』, 『山海經』, 『世本』, 『史記』 등의 고서에 의거하여, 黃帝와 그 후예들의 계보를 다시 배열함으로써, 唐(堯)·虞(舜)·夏·商·周·楚·蜀이 모두 황제의 후예라고 확정했다. 그는 또한 炎黃 二帝의 사적 및 황제의 후예에 대한 전설적인 계보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중국인들이 현재까지 아직도 “五千年文明古國”이란 말을 사용하여 자찬하듯이, 잠재의식 속에 중국 문명은 곧 황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역사 이전 시기부터 민족의 통일은 중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며, 중화 문명의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러한 민족정신은 존재했다는 것이다.¹⁴⁷⁾ 李學勤의 이러한 주장은 중화를 중심으로 하는 애국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20년대에 고힐강이 이미 제기했던 전통관념에 대한 ‘네 가지 타파[四個打破]’¹⁴⁸⁾와는 단연 배치되는 것이다.¹⁴⁹⁾ 필자가 보기에도 ‘신고’파의 ‘의고’파에 대한 이 비판의 논점은 다분히 정치적인데, 예를 들어 廖名春은 그가 쓴 한 편의 논문에서 고힐강의 ‘누충설’은 일본학자의 ‘堯舜禹抹殺論’의 영향을 받은 산물임을 어떻게든 증명하고자 했다.¹⁵⁰⁾ 그러나 사실 고힐강은 외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다가 북경대학교 도서관에서 그가 編目 작업을 했었는데, 어떤 시기의

147) 李學勤, 『走出疑古時代』, 2007, p.12, pp.24-25, pp.27-28.

148) 고힐강이 고대사 연구를 위해 타파해야 할 낡은 관념으로 제시한 ‘네 가지 타파[四個打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顧頽剛 著, 김병준 譯, 「解題: 『고사변』자서와 고힐강」, 『고사변 자서』, 2006, pp.222-223을 참조.

149) 林沄, 「真該走出疑古時代嗎?: 對當前中國古典學取向的看法」, 2007, p.6.

150) 廖名春, 「試論古史辨運動興起的思想來源」, 陳其泰·張京華 主編, 『古史辨學說評價討論集』, 京華出版社, 2001.

내용이 ‘요순우말살론’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강제로 위와 같은 죄명을 씌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¹⁵¹⁾ 이와 같은 ‘신고’파의 주장은 1929년 國民政府가 商務印書館에서 고힐강이 『中學用本國史敎科書』를 펴낼 때, 국민당 宣傳部長이었던 戴季陶가 출판을 금지하던 것과 논리가 흡사하다.¹⁵²⁾ 이 밖에도 고고학자로 잘 알려진 徐旭生은 비슷한 맥락에서 고힐강을 제국주의 어용학자로 규정하였으며,¹⁵³⁾ 賈蘭波는 ‘의고’파를 극복하자고 시작한 ‘夏商周斷代工程’¹⁵⁴⁾이 민족적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⁵⁵⁾ 또한 宋健은 “의고사조를 넘어서 黃帝世系를 重建하자”고 주장하며 전통 古史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華夏族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¹⁵⁶⁾ 그 이후에도 쓰아지는 고힐강과 ‘의고’파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면 결국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151) 실제로 白鳥庫吉의 ‘堯舜禹抹殺論’이 古史辨運動을 일으킨 주요 동력이었다는 주장이 존재하나, 일본학자의 학설이 고힐강의 중국고대사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고힐강은 일본어를 알지 못했고 그가 白鳥氏의 작품을 접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더욱이 白鳥庫吉의 학설은 당시 중국에서 어떠한 논의도 일으키지 못했다(王汎森, 『古史辨運動的興起』, 1987, p.53). 뿐만 아니라 고힐강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일기 곳곳에서도 보인다. 『顧頽剛日記』第2卷(上), 1928. 4. 5.字記事, p.151; 『顧頽剛日記』第2卷(下), 1931. 2. 7.字記事, p.492; 『顧頽剛日記』第3卷, 1937. 8. 14.字記事, p.679.

152) 顧頽剛著, 김병준譯, 『고사변 자서』, 2006, p.199.

153) 徐旭生, 『中國古史的傳說時代』(修訂本), 文物出版社, 1985.

154) ‘夏商周斷代工程’은 1996년에 시작되어 2000년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001년 결과보고 簡本을 통해, 夏 나라와 商 초기, 商 후기 초반의 대략적인 연대, 그리고 商 후기에서 商周 교체, 西周 시기 왕의 구체적인 연대가 발표되었다. 이는 기존 문헌 자료에 고고학, 그리고 천문학과 화학 등 인문사회 영역과 자연과학 영역의 성과가 융집된 결과였다. 이를 통해 夏 나라의 연대를 대략 기원전 2070년에서 기원전 160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夏 나라의 실재를 궁정하는 결과를 발표하였다(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p.86). 이들은 “의고시대를 벗어나자”는 李學勤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 “고고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신화·전설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黃帝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世系와 성명 등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믿고 고찰해 볼 수 있다”고까지 한다. ‘하상주단대공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적 민족주의의 고취를 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의심하는 입장에서 볼 경우, 그 배경에 이른 바 ‘信古’의 입장이 깔려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顧頽剛著, 김병준譯, 『고사변 자서』, 2006, p.7).

155) 岳南著, 심규호·유소영譯, 『천년의 학술현안』 2, 일빛, 2003, p.354.

156) 宋健, 「超越疑古 走出迷茫」, 『河北師範大學學報』 4, 1996.

고힐강과 ‘의고’파에 대한 비판은 이들에 의해 무너진 민족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신고’파의 ‘의고’파에 대한 비판은 사실에 기반한 공격이 아니다.

고힐강이 말년까지도 『尙書』 연구에 천착했음을 주지의 사실일 뿐 아니라,¹⁵⁷⁾ 위와 같이 고힐강의 실제 연구 그 자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을 가하기보다는 중화 문명을 선양한다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힐강과 그의 의고사조를 깎아내리는 ‘신고’파 측의 논리는, 제2장에서 고힐강과 그의 활동을 애국주의적이라며 창찬했던 모습과도 완전히 상반된다. 이는 특정한 담을 이미 정해 놓고서 어떤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것을 칭양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도하는 양극단의 태도에 놓이게 됨으로써, 고힐강이라는 인물과 그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최근 ‘의고’파를 비판하는 일련의 추세는 ‘의고’파 주장의 본질인 연구 방법 자체에 대해 비판했다기보다, ‘의고’파에 속하는 자들이 의고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얻어낸 결론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서가 신뢰할 만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고힐강에 대해 위와 같은 오해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이제 그의 『尙書』 연구를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말하는 문헌상의 『尙書』는 清代에도 이미 假書로 판명된 『古文尙書』가 아닌 『今文尙書』를 가리키며, 특히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고힐강의 『尙書』辨偽 작업과 관련하여 假作으로 술하게 거론되었던 「禹貢」篇 등이 아니라, 西周 시기부터 시작되는 역사 기록이 담긴 『尙書·周書』篇을 주된 사례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周書』 중에서도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이하 清華簡으로 약칭)에 들어 있는 『今文尙書』의 내용 중 일부와 동일한 「金縢」篇을 주요 참조 사례로서 인용할 것이다.¹⁵⁸⁾

157) 『顧頡剛日記』第6卷(下), 1950. 6. 30.字 記事, p.652; 『顧頡剛日記』第10卷(上), 1965. 5. 6.字 記事, p.268.

158) 清華簡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尹至」·「尹誥」·「程寤」·「保訓」·「耆夜」·「金縢」·「皇門」·「祭公」·「楚居」의 아홉 편이다. 당초 李學勤은 이 중 「尹至」·「尹誥」·「金縢」을 『尙書』·『周書』에 비정하는 동시에, 「保訓」·「耆夜」를 『尙書』·『周書』와 유사한 사료로 간주하였고, 게다가 「程寤」·「皇門」·「祭公」을 傳世本 『逸周書』와 동일한 계통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楚居」를 제외한 여덟 편을 『尙書』로 다시 해석하였다(小澤賢二, 「清華簡『尙書』文體考」, 淺野裕一·小澤賢二 著, 『出土文獻から見た古史と儒家經典』, 汲古書院, 2012,

우선 『今文尚書』의 「金縢」篇의 내용은,¹⁵⁹⁾ 周公이 병든 武王을 대신해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기도한 내용을 金縢에 봉하였는데 이후에 등극한 成王이 管叔 등의 참소로 주공을 의심했다가 기도문을 꺼내 보고는 그의 충심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¹⁶⁰⁾ 이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金縢」篇¹⁶¹⁾ⁱ 清華簡에서도 발견되었다.¹⁶²⁾ 이와 같은 「金縢」篇에 대해서 고힐강의 ‘의고’파와 李學勤의 ‘신고’파가 내린 결론은 모두 「金縢」篇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는 것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양자가 든 논거상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우선 ‘의고’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내

p.229).

- 159) 본문에서 인용하는 『今文尚書』의 저본은 孔安國 傳·孔穎達 正義, 『十三經注疏 尚書正義』, 2019이다. 본문상의 표점이나 문단 구분 등은 모두 顧頤剛·劉起釪, 『尚書校釋譯論』, 中華書局, 2005의 책에 근거했다.
- 160) 『尚書』「金縢」, pp.393-402, “既克商二年，王有疾，弗豫。二公曰：“我其爲王穆卜？”周公曰：“未可以戚我先王。” / 公乃自以爲功：爲三壇，同蟬；爲壇於南方，北面，周公立焉，植璧秉珪，乃告太王、王季、文王。史乃冊祝曰：“惟爾元孫某遘厲虐疾，若爾三王是有丕子之責于天，以旦代某之身。予仁若考，能多材多藝，能事鬼神。乃元孫不若旦多材多藝，不能事鬼神。 / 乃命于帝庭，敷佑四方，用能定爾子孫于下地，四方之民罔不祇畏。嗚呼！無墜天之降寶命，我先王亦永有依歸！ / 今我卽命于元龜。爾之許我，我其以璧與珪，歸俟爾命。爾不許我，我乃屏璧與珪。” / 乃卜三龜，一習吉。啓籥見書，乃并是吉。公曰：“體，王其罔害！予小子新命于三王，惟永終是圖。茲攸俟，能念予一人。” / 公歸，乃納冊于金縢之匱中，王翌日乃瘳。 / 武王旣喪，管叔及其群弟乃流言於國曰：“公將不利於孺子！” / 周公乃告二公曰：“我之弗辟，我無以告我先王。”周公居東二年，則罪人斯得。于後，公乃爲詩以貽王，名之曰「鵲鶡」。王亦未敢誚公。 / 秋大熟，未穫，天大雷電以風，禾盡偃，大木斯拔，邦人大恐，王與大夫盡弁，以啓金縢之書，乃得周公所自以爲功代武王之說。 / 二公及王乃問諸史與百執事。對曰：“信。噫公命，我勿敢言！”王執書以泣曰：“其勿穆卜！昔公勤勞王家，惟予沖人弗及知。今天動威以彰周公之德，惟朕小子其新逆；我國家禮亦宜之。” / 王出郊，天乃雨，反風，禾則盡起。二公命邦人，凡大木所偃，盡起而築之，歲則大熟。”
- 161) 본편의 簡文이 가진 원래 篇名의 제목은 「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이며, 그 내용은 『尚書』「金縢」篇과 같다. 간문에서 「金縢」을 편명으로 하지 않은 건 필사자가 「書序」를 본 적이 아마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전편의 간문은 西漢 초 伏生이 전한 『今文尚書』와 내용이 대체로 서로 같지만, 몇몇 다른 점도 있다. 예를 들어 周武王이 “既克殷三年” 후에 병에 걸렸다는 내용은 今本에서의 “二年”과는 다르며, 간문 중에는 今本에서처럼 접복을 친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 또한 周公의 “居東三年”은 今本 중의 2년과는 다르다는 차이점 등이 있다(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2010, p.157).
- 162)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2010, p.158.

세우고 있다. 첫째, 漢代 今文家의 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만약에 한대 금문가의 설에 따라 周公이 죽은 후에야 風雷가 경고를 보내 成王의 의심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한다면, 생전에는 계속 成王의 의심 중에 있어 죽을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周公의 업적이 어떻게 역사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한대 금문가들은 風雷가 경고를 보인다는 이야기를 周公 사후에 成王이 周公의 장례를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자 출현한 것, 즉 ‘葬疑’로 보았으며,¹⁶³⁾ 고문가들은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 管叔, 蔡叔이 유언비어를 퍼뜨리자 周公이 혐의를 피해 바깥에 거하게 된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즉 성왕이 ‘信讒’한 후에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¹⁶⁴⁾ 하지만 ‘의고’파에서는

163) “『金縢』曰：‘秋大熟未獲，天大雷電以風，禾盡偃，大木斯拔，邦人大恐。’當此之時，周公死，儒者說之以爲成王狐疑於周公。欲以天子禮葬公，公人臣也；欲以人臣禮葬公，公有王功。狐疑於葬周公之間，天大雷雨，動怒示變，以彰聖功。古文家以武王崩，周公居攝，管、蔡流言，王意狐疑周公，周公奔楚，故天雷雨以悟成王。夫一雷一雨之變，或以爲葬疑，或以爲信讒，二家未可審。”(王充, 『論衡』「感類」篇); 『尚書大傳』, “周公疾，曰：吾死必葬於成周，示天下臣於成王也。周公死，成王欲葬之於成周。天乃雷雨以風，禾盡偃，大木斯拔，國人大恐，王與大夫開金縢之書，執書以泣曰：周公勤勞王家，予幼人弗及知，乃不葬於成周而葬之於畢，示天下不敢臣。”(『漢書』『梅福傳』注引) 이후에도 『白虎通』의 「封公侯」, 「喪服」篇, 『後漢書』의 「周舉傳」, 「張奐傳」 및 何休의 『公羊解詁』『僖公三十一年』 등은 모두 금문가의 이러한 설을 따랐다(顧頽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2005, pp.1247-1248).

164) 徐文靖은 『竹書紀年統箋』에서, “楚卽楚山，爲王季葬地，亦卽『季婦鼎』‘王徙于楚麓’之楚”라고 하였는데, 『左傳』『成公十三年』注: “新楚，秦地。”, 『括地志』說: “終南山，一名楚山。”並謂: “周公奔楚，當是因流言出居，依於王季、武王之墓地，無遠涉東都之理。”라고 하였다(宋志英 輯, 『《竹書紀年》研究文獻輯刊』第二冊,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p.341). 한편 俞正燮의 『癸巳類稿』에 서는 “居東卽奔楚.”라고 하였다(俞正燮 撰, 涂小馬 等 校點, 『癸巳類稿』, 卷1, 遼寧出版社, 2001, pp.17-18). 司馬遷의 『史記』 역시 한대 고문가의 영향을 다소 받았는데(『史記』『蒙恬列傳』, “成王有病甚殆，(周)公旦自揃其爪以沉於河，曰：‘王未有識，是旦執事有罪殃，旦受其不祥。’乃書而藏之記府。……及王能治國，有賊臣言周公旦欲爲亂。……王乃大怒，周公旦走而奔於楚。成王觀於記府，得周公旦沉書。乃流涕曰：‘孰謂周公旦欲爲亂乎？’殺言之者，而反周公旦。”), 『사기』 이후로도 고문가 내부에서 이견이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居東’ 건에 대해, 馬融, 鄭玄은 “避居東都”라고 보았고(『釋文』, 『詩·七月』箋), 鄭玄은 또한 두루뭉술하게 “避居東國”라고 했으며, 王肅과 『偽孔傳』은 금문가의 설을 받아들여 ‘東征’이라고 보았다. 또한 鄭玄은 “罪人斯得”을 成王이 “盡得周公之屬黨”이라고 해석했으며, 『鴟鴞』의 시는 주공의 屬黨이 죄가 없어 주살하지 못하자 지은 것으로 그 시기는 東征 이전이라고 보았다(『詩·鴟鴞』疏). 王肅과 『偽孔傳』은 『詩·毛傳』과 동일하게 ‘罪人’은 管叔과 蔡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罪人斯得”은 周公이 東征한 2년 사이에 죄인을 모두 잡아들인 것으로, 『鴟鴞』는 東征하여 管叔과 蔡叔을 이미

이렇듯 이견이 분분한 해석은 단지 이 故事が 전해져 내려올 때 계속된 문화를 반영한다고 일축한다. 동일한 고사에 대해 수많은 전설이 존재한다면, 「金縢」篇은 단지 그중 하나의 전설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힐강 등은 본문의 의미를 통해 해당 편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經師들의 曲解와 爭議 안으로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았다.¹⁶⁵⁾ 둘째, 「金縢」篇의 고사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고대의 제왕들은 災禍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종종 귀신을 향해 災害를 없애는 제사를 올리고, 좌우의 親人이나 大臣으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그 화를 짊어지게 하였는데, 고힐강 등은 楚昭王과 元太祖의 네 번째 아들인 툴루이(Tölui, 拖雷)의 사례가 「金縢」篇의 고사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본다.¹⁶⁶⁾ 셋째, 「金縢」篇에 기재된 周公의 冊祝之文은 그 사상적인 내용 외에도, 문구나 어휘 등이 모두 기본적으로 서주 초기의 상과 부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金縢」篇의 주요 부분인 전반부는 비교적 믿을 만하기 때문에, 「金縢」이 서주 초기의 작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공의 禱祝의 말 이외의 많은 叙事 문장들은 『尚書』에서의 여러 ‘誥’의 체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顧命」篇과 마찬가지로 후대에 東周의 사관이 보충하여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¹⁶⁷⁾

다음으로 李學勤 등의 ‘신고’파가 「金縢」篇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결론에 대한 주된 근거는 문헌자료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렸던 ‘의고’파와는 달리 새로이 발견된 출토문헌에 기댄 바가 컸다. 즉 ‘신고’파에서는 기존의 전래 문헌에서 모두 “周公居東二年”인 것과는 달리, 清華簡에서는 “居東三年”이라고 되어 있는 기록의 차이를 바탕으로 「金縢」篇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실재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에 “周公居東三年”이 맞다면 주공거동의 진정한 목적은 사실 ‘東征’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周公東征三年”的 사실하고도 마침 잘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偽孔傳』 등이 주공거동을 “주공동정”이라고 해석한 것은 정확했던 것인 반면, 馬融, 鄭玄 등이 이를 “周公待罪於東”으로 해석한 것은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⁶⁸⁾ 또한 李

주술한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偽孔傳』 및 『孔疏』)(顧頡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2005, pp.1248-1250).

165) 顧頡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2005, p.1250.

166) 顧頡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2005, pp.1251-1252.

167) 顧頡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2005, p.1253.

168) 劉國忠, 『走近清華簡』, 高等教育出版社, 2011, p.105.

學勤 등은 清代 학자들의 과도한 해석도 문제 삼는다. 周公이 유언비어가 이미 퍼진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 왜 하필 ‘東征’이었는지에 관해 宋元 시기의 많은 학자들은 좋은 해석을 내놓은 반면,¹⁶⁹⁾ 청대 학자들은 대다 수가 馬融과 鄭玄의 설을 받아들여서, “주공거동”을 주공이 동쪽에서 待罪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신고’파는 청대 학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것은 그 당시 학술적인 분위기와도 긴밀하게 연관된다면서, 청대 학자들의 『尙書』 연구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은 『古文尙書』 및 『僞孔傳』이 六朝 시대의 僞作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혔다는 점이지만, 이로 인해 『僞孔傳』 안에 좋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들은 이를 아예 폐기해 버린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¹⁷⁰⁾ 결과적으로 李學勤 등은 「金縢」篇의 簡文이 대체로 完整하고 首尾가 갖추어져 있으며, 비록 『今文尙書』의 경우와 일부 중요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 篇章의 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본다. 따라서 「金縢」篇이 위작이라든가 錯簡이라는 주장, 또는 각 단락이 서로 다른 단계에 완성되었다는 주장 등은 해당 간문의 발견으로 인해 알아서 무너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신고’파에 따르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한 편의 매우 중요한 주나라 초기에 관련된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다.¹⁷¹⁾ 한편 이러한 논점상의 차이 외에도 ‘의고’, ‘신고’兩派의 「金縢」篇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상의 차이는 부록 2의 도표에 정리된 바와 같다.¹⁷²⁾

169) 예를 들어 錢時는 “然則公之東征也，非爲流言而征也，流言而四國叛，爲成王而征也，爲有周宗社而征也。”(影印文淵閣, 『四庫全書』第59冊, 臺灣商務印書館, 1983, p.563)라고 했으며, 董鼎은 “周公之志，非爲身謀也，爲先王謀也；非爲先王謀也，以身任天下之重也。”(董鼎, 『書蔡氏傳輯錄纂注』 권4(納蘭性德, 『通志堂經解』(影印本) 第6冊,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3, p.429))라고 했고, 陳大猷 또한 “四國之變，征之少緩，則蔓延莫遏。周公豈敢顧一己之小嫌，忘宗社之大計邪！”(陳大猷, 『書集傳或問』 卷下(納蘭性德, 『通志堂經解』(影印本) 第6冊, 江蘇廣陵古籍刻印社, 1996, p.190))라고 했다(劉國忠, 『走近清華簡』, 2011, pp.106-107).

170) 劉國忠, 『走近清華簡』, 2011, p.107.

171) 劉國忠, 『走近清華簡』, 2011, p.96.

172) 이 표에서 ‘신고파’의 입장은 清華簡 정리를 진두지휘한 李學勤과 그 이후에 청화간 연구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책으로 출간한 劉國忠 양자의 견해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2010; 劉國忠, 『走近清華簡』, 2011). 한편 ‘의고파’의 입장은 顧頽剛·劉起釪, 『尙書校釋譯論』, 2005의 책을 저본으로 하였다. 표를 정리할 때 기준은 지면 관계상 「金縢」篇의 모든 구절을 일일이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의고’와 ‘신고’ 양 파의 해석상의 차이가 뚜렷한 구절 내지는 출토문헌 상에서 기존 전래 문헌에서의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하지만 위와 같은 근거로 「金縢」篇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신고’파의 주장에는 일부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앞서 李學勤 등이 주장하듯이 ‘의고’파가 『僞孔傳』 등의 고서를 아예 폐기해 버렸다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고힐강은 자신의 『尚書』 연구에서 『左傳』이나 『春秋』, 『禮記』,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위서로 판명된 『僞孔傳』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져다 활용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周書』「牧誓」篇에서 고힐강 등은 『僞孔傳』의 “庸濮在江漢之南”, 『括地志』의 “濮在楚西南” 등을 예시로 들면서濮族의 지역에 대해 위치는 대략 鄂의 서남부부터 湘의 북서 일대이고, 활동 범위는 雲夢, 洞庭의 여러 늪지대였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¹⁷³⁾ 또한 『周書』「大誥」篇의 “民養其觀弗救?”라는 구절의 ‘觀’자에 대한 해석에서는, 金文에서의 ‘觀’은 ‘蘆’이라 되어 있으며, 『山海經』「西山經」에는 ‘觀水’, 『呂氏春秋』「本味」에는 ‘蘆水’라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초기에 본문에서는 ‘蘆’이었으나 漢代人们이 이를 ‘勸’이라 잘못 읽었다고 해석했다.¹⁷⁴⁾ 이렇듯 고힐강의 고서에 대한 태도는 일률적인 부정이 아니라 철저한 사료 비판과 검토에 근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金縢」篇의 내용이 담겨 있는 『史記』「魯周公世家」에 대한 고힐강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司馬遷은 “六經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을 모아서 취사한 후, 百家의 雜語를 정제하는[厥協六經異傳, 整齊百家雜語]” 방법에 따라서 한대의 金縢 전설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을 모두 한 권의 책에 담아냄으로써,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자료를 만났을 때 선택할 줄 모르고 단지 整齊할 줄만 알았다고 비판했다.¹⁷⁵⁾ 그렇다고 고힐강이 사마천의 『史記』를 전부 부정한 것도 물론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의 “그것은 이미 오래되었다[尚矣]”의 정신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¹⁷⁶⁾ 그런데 李學勤 등의 ‘신고’파는 사마천이 『史記』에 「五帝本紀

구절 등을 중심으로 삼아 다루었다. [부록 2 참조]

173) 顧頡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2005, p.1186.

174) 顧頡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2005, p.1278.

175) 顧頡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2005, pp.1248-1249.

176) 顧頡剛, 「戰國秦漢間人的造僞與辨僞」, 『古史辨』第7冊 上編, 1941, p.49. 사마천의 『史記』에는 “尚矣”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즉, 三代 이전의 일은 너무 오래되어 잘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不可記”, “不可考”, “吾不知”, “余不敢言” 등과 같이 자주 쓰인다. 이는 사마천의 역사를 대하는 신중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고힐강은 바로 이와 같은 사마천의 “尚矣”的 정신을 높이 샀던 것이다.

」를 기록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서, 黃帝의 존재를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로 주장하려고 하는 오류를 역으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고서에 대한 비판적 겸토와 특정 목적에 의한 취사선택,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金縢」篇 내에서도 구체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李學勤 등은 清華簡의 등장에 따라 『今文尚書』의 “既克殷二年”을 “既克殷三年”이라고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¹⁷⁷⁾ 출토자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二年”과 “三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程元敏의 주장처럼 清華簡의 「金縢」篇 저자는 초나라의 學人으로 중원의 傳本에 크게 수정을 가해서 강론에 사용했을 수도 있고,¹⁷⁸⁾ 李學勤 자신의 주장처럼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다른 계통으로 나누어 전해진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¹⁷⁹⁾ 출토문헌인 간독 자료 역시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冊’이었다는 점에서 편찬과 유통 과정에서의 복잡성 문제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¹⁸⁰⁾ 또한 「金縢」篇의 “周公居東二年”이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東征’, ‘待罪’, ‘奔楚’ 등의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데, 『今文尚書』의 “二年”과 簡本의 “三年”을 만약에 ‘동정’이라고 볼 경우, 이 역시 모두 각각의 근거가 있기에 하나로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¹⁸¹⁾ 따라서 고힐강 등 ‘의고’파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金縢」篇의 각 단락이 서로 다른 시기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라든가, 「金縢」의 고사가 역사적 사실로서 정확히 실재했을지 판단하기 이

177) 李學勤, 「由清華簡「金縢」看周初史事」, 『初識清華簡』, 中西書局, 2013, p.116; 劉國忠, 「從清華簡「金縢」看傳世本「金縢」的文本問題」, 『清華大學學報』 4, 2011.

178) 程元敏, 「清華楚簡本『尚書·金縢篇』評判」, 『傳統中國研究集刊』 9-10, 上海人民出版社, 2012, p.36.

179) 李學勤, 「清華簡九篇綜述」, 『文物』 5, 2010, p.55.

180) 이러한 경우는 전래 문헌과 새롭게 출토된 간독 자료와의 비교 사례들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上博楚簡「申公臣靈王」과「鄭子家喪」은 전래 문헌인 『左傳』과 비교해 볼 때 군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사된 고사인데, 이와 같은 고사의 등장은 上博楚簡에 수록된 문헌과 그 속의 군신관계 논의가 당시 다양한 판본과 관점 중 하나였을 뿐임을 보여주며, 이는 새롭게 출토된 간독 자료 역시도 戰國時代 당시 서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역으로 드러내준다(장호영, 「戰國時代 楚簡 속 논의에 나타나는 군신관계의 다양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40-46).

181) 劉光勝,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整理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16, p.84.

전에 이 또한 여러 전설 중의 하나로서, 서주 초기의 역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尙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둘러싸고 ‘의고’와 ‘신고’파 양자의 관점을 비교해 보았다. 하지만 ‘의고’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의심해서 버리고, 또 ‘신고’라고 하여 과거의 역사를 모두 믿기만 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본문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金縢」篇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신고’파 측에서는 청대 학자들이 ‘의고’에만 전념하여 경전에서의 좋은 설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면서 한대 鄭玄의 학설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字句에 대한 해석에서는 또 반대로 그의 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弁’을 ‘爵弁’이라고 한 鄭玄의 설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⁸²⁾ 한편 고힐강 역시 「金縢」篇이 주 대의 실상을 드러내기에 좋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의 상세한 논증 과정에서도 각종 考古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설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¹⁸³⁾ 이와 같이 세밀한 논증을 위주로 하는 고힐강의 『尙書』 연구에 대해 혹자는 심지어 그가 말년에는 ‘신고’파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¹⁸⁴⁾ 결국 『尙書』에 대한 兩派의 해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듯이, ‘의고’와 ‘신고’파의 논쟁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진 영 논리’에 의해서 그 논점의 본질이 가려졌을 뿐, 양자가 사용한 방법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100년도 더 지난 고힐강 ‘의고’의 방법은 출토문현의 우세로 인해 ‘신고’파가 우세해지는 현재 상황에서도 단순히 ‘신고’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清華簡과 같은 출토문현에 대한 사료 비판의 필요성을 더욱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182)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2010, p.161. [부록 2]의 ‘신고파’ 측 해석에서 ⑧번에 해당.

183) 顧頽剛·劉起釗, 『尙書校釋譯論』, 2005, p.1230. [부록 2]의 ‘의고파’ 측 해석에서 ④번에 해당.

184) 許冠三, 『新史學九十年』, 1986, pp.173–204; 余英時, 『史學與傳統』, 1982, p.286.

맺음 말

본고에서는 고힐강의 현실 참여와 그의 실제 古史 연구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禹貢』 편집과 『尚書』 연구,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힐강은 일반적으로 ‘학술과 정치 사이’에 있던 학자들과는 달리 ‘純粹 학자’로 평가되곤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힐강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학문에만 몰두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고힐강은 1920년대부터 1930~4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식인으로서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민족의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救國’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고힐강은 ‘구국’의 필요성 하에서 여러 현실 참여적인 사업들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理性’의 힘으로써, 즉 ‘啓蒙’을 수단으로 삼아 ‘비이성’이 지배하던 당시 중국을 救濟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고힐강에게 있어 이성의 추구를 통한 계몽의 확장이 곧 ‘구국’이었다.

제1장에서는 고힐강의 학술 활동이 곧 ‘구국’이었음을 살펴보았다면, 제2장에서는 고힐강의 현실 참여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사례로서 고힐강이 창간한 『禹貢』 잡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참여의식 때문에 고힐강은 ‘민족주의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처음에 ‘구국’의 필요를 느끼고 『禹貢』을 창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이고 세밀한 고증 위주의 경향은 『禹貢』 잡지 안에서도 그대로 구현되었다. 이밖에 고힐강이 편찬한 『現代初中敎科書本國史』의 사례나 고힐강과 함께 ‘순수 학자’로 평가받는 傅斯年과의 비교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힐강은 단순히 애국주의적 또는 민족주의적인 인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정확한 사실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야말로 ‘구국’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는 항일전쟁 시기 ‘國亡’의 위기 앞에서 학문도 정치에 복무해야 한다고 믿었던 당시 대다수의 지식인들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제3장에서는 고힐강의 고대사 연구로 직접 들어가서 그가 중국의 고대 경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尚書』에 대한 연구는 고힐강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고대사 연구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힐

장과 그의 연구에 대한 비판은 첫 번째 비판인 1926년 그가 『古史辨』을 편찬했을 당시뿐 아니라, 1950년대 胡適 비판의 시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信吉派’에 의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 차례나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 세 차례의 고힐강 비판의 시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중국의 영광스럽고 유구한 역사에 대한 향수 아래에서 고힐강을 ‘반민족적’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는 셋 다 모두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고힐강에 대한 비판과 오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信古’파에 의해 ‘疑古’파라는 오해 또한 근래 들어서 받고 있다. 고힐강의 ‘의고’는 단순히 어떤 결과가 아니라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여 년간 고힐강에 대한 ‘신고’파의 비판은 의고학파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주를 이루어 왔다. ‘신고’파의 ‘의고’파에 대한 비판의 주요 논점은 첫째, 최근에 출토문헌이 증가함에 따라 ‘의고’의 방법에 의한 고힐강의 결론이 대부분 틀렸다고 하는 주장이다. 둘째, ‘신고’파 측에서는 華夏族의 우수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면서 고힐강이 비애국적이라든가 그가 전통을 무시했다는 등의 평가를 제시한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논점 모두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비판이 아니며, 중화 문명을 선양한다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의고’의 혐의를 고힐강에 덧씌운 진영 논리가 결국 ‘의고’ 대 ‘신고’ 논쟁의 본질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고힐강에 대해 위와 같은 오해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면 제3장 말미에서는 그의 『尚書』 연구로 직접 한 번 들어가 보았다. 구체적으로 ‘의고’와 ‘신고’ 양자가 각각 『尚書』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西周 시기부터 시작되는 역사 기록이 담긴 『尚書·周書』篇, 그중에서도 清華簡에 들어 있는 『今文尚書』의 내용 중 일부와 동일한 「金縢」篇을 주요 사례로서 살펴보았다. 고힐강의 ‘의고’파와 李學勤의 ‘신고’파가 내린 결론은 모두 「金縢」篇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양자가 사용한 논거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신고’파의 주장에는 일부 문제가 존재하는데, 우선 ‘의고’파가 『偽孔傳』 등의 고서를 아예 폐기해 버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출토문헌인 간독 자료 역시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冊’이었다는 점에서 편찬과 유통 과정에서의 복잡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의고’파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金縢」篇의 각 단락이 서로 다른 시기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라든가, 「金

縢」의 고사가 역사적 사실로서 정확히 실재했을지 판단하기 이전에 이 또한 여러 전설 중의 하나로서 서주 초기의 역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이다.

결국 『尙書』에 대한 兩派의 해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듯이, ‘의고’와 ‘신고’파의 논쟁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 논점의 본질이 가려졌을 뿐, 양자가 사용한 방법상에는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의고’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의심해서 버리고, ‘신고’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를 모두 믿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그간 고힐강에 대해 ‘의고’ 또는 ‘신고’파라고 행했던 비판은 모두 그에게 어떤 특정한 협의를 씌우기 위한 하나의 명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의 연구는 고힐강의 실제 古史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그가 받았던 그간의 오해들이 부당함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힐강의 『禹貢』 편집과 『尙書』 연구 모두 학술을 통해 ‘구국’하려 했던 일관된 시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고힐강의 古史 연구와 그의 현실 참여 양자 간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문헌자료밖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고힐강의 古史 연구에도 분명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중국고대사 연구의 가치는 결코 부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출토문헌의 범람으로 인해 ‘신고’파가 점점 우세해지는 현재 중국사학계의 경향 속에서 고힐강의 ‘의고’의 방법은 여전히 틀리지 않았음을 더욱 말해준다.

부 록

[부록 1]

<표 1> 譚其驥의 『禹貢』에 발표한 글

	제목	권호	출간 시기	비고
1	「遼史地理志補正」	第1卷 第2期	1934년	
2	「清史稿地理志校正(直隸)」	第1卷 第3期	1934년	
3	「論兩漢兩晉戶口」	第1卷 第7期	1934년	
4	「清史稿地理志校正(奉天)」	第1卷 第9期	1934년	
5	「元福建行省建置沿革考」	第2卷 第1期	1934년	
6	「元陝西四川行省沿革考」	第3卷 第6期	1935년	
7	「釋明代都司衛所制度考」	第3卷 第10期	1935년	
8	「補陳疆域志校補」	第5卷 第6期	1936년	
9	「補陳疆域志校補」(續完)	第5卷 第10期	1936년	
10	「<宋州郡志校勘記> 校補」	第6卷 第7期	1936년	
11	「兩漢地理考辨」	第6卷 第10期	1937년	
12	「粵東初民考」	第7卷 1·2·3合期	1937년	

<표 2> 馮家昇의 『禹貢』에 발표한 글

	제목	권호	출간 시기	비고
1	「洪水傳說之推測」	第1卷 第2期	1934년	
2	「遼金史地志互校」	第1卷 第4期	1934년	
3	「介紹“到西北去”的一部書」	第1卷 第9期	1934년	
4	「我研究東北史地的計劃」	第1卷 第10期	1934년	
5	「再介紹“到西北去”的一部書」	第1卷 第12期	1934년	
6	「東北史中諸名稱之解釋」	第2卷 第7期	1935년	
7	「東北史地研究之已有成績」	第2卷 第10期	1935년	
8	「周秦時代中國經營東北之考略」	第2卷 第11期	1935년	
9	「漢魏時期東北之文化」	第3卷 第3期	1935년	
10	「述肅慎系之民族」	第3卷 第7期	1935년	
11	「述東胡系之民族」	第3卷 第8期	1935년	
12	「慕容氏建國始末」	第3卷 第11期	1935년	
13	「日人對於我東北的研究近狀」	第5卷 第6期	1936년	
14	「西遼建國始末及其紀年」	第5卷 第7期	1936년	
15	「原始時代之東北」	第5卷 3·4合刊	1936년	
16	「大月氏民族及其研究之結論」	第5卷 8·9合刊	1936년	
17	「契丹可敦城考」	第6卷 第11期	1937년	
18	「豆莫婁國考」	第7卷 1·2·3合刊	1937년	
19	「匈奴民族及其文化」	第7卷 第5期	1937년	
20	「蠕蠕國號考」	第7卷 8·9合刊	1937년	

<표 3> 史念海가 『禹貢』에 발표한 글

	제목	권호	출간 시기	비 고
1	「兩漢郡國縣邑增損」	第1卷 第8期	1934년	
2	「關於“兩漢郡國縣邑增損表”」	第1卷 第11期	1934년	
3	「兩〈唐書·地理志〉互勘」(關內道, 河南道)	第3卷 第2期	1935년	
4	「兩〈唐書·地理志〉互勘」(河東道, 河北道, 山南道)	第3卷 第3期	1935년	
5	「兩〈唐書·地理志〉互勘」(山南道, 淮南道, 江南道)	第3卷 第4期	1935년	
6	「兩〈唐書·地理志〉互勘」(江南道)	第3卷 第5期	1935년	
7	「兩〈唐書·地理志〉互勘」(隴右道, 劍南道)	第3卷 第6期	1935년	
8	「兩〈唐書·地理志〉互勘」(嶺南道)	第3卷 第9期	1935년	
9	「西漢侯國考」	第4卷 第2期	1935년	
10	「西漢侯國考」(續, 南陽郡--沛郡)	第4卷 第5期	1935년	
11	「西漢侯國考」(再續)	第4卷 第9期	1936년	
12	「西漢淮南三國考」	第7卷 1·2·3合刊	1937년	
13	「秦縣考」	第7卷 6·7合刊	1937년	
14	「西漢燕代二國考」	第7卷 8·9合刊	1937년	

<표 4> 侯仁之가 『禹貢』에 발표한 글

	제목	권호	출간 시기	비고
1	「<漢書·地理志>中所釋之<職方>山川澤寢」	第1卷 第5期	1934년	
2	「黑城探檢記」	第1卷 第9期	1934년	번역 및 소개
3	「新疆公路視察記」	第3卷 第3期	1935년	번역 및 소개
4	「蒙古的盟部與旗」	第3卷 第6期	1935년	번역 및 소개
5	「蒙古的王公、僧侶與平民階級」	第3卷 第10期	1935년	번역 및 소개
6	「記本年湘鄂贛皖四省水災」	第4卷 第4期	1935년	
7	「燕雲十六州考」	第6卷 3·4合期	1937년	
8	「讀『黑龍江外記』隨筆」	第6卷 3·4合期	1937년	
9	「河北新村訪問記」	第6卷 第5期	1936년	
10	「薩縣新農實驗場及其新村」	第6卷 第5期	1936년	
11	「旅程日記」	第6卷 第5期	1936년	
12	「讀『周官·職方』」	第7卷 6·7合刊	1937년	

[부록 2]

<今文『尙書』「金縢」篇에 대한 疑古·信古派의 해석 비교>

	구절	주석
疑古派	①“既克商二年”	周 武王이 商을 정복한 것이 周 文王이 ‘受命’한 지 11년째인 사실에 근거했을 때(『周書』「牧誓」), 여기서 “二年”이란 당연히 그로부터 13년째 되는 해일 것임. 皮錫瑞는 “卽王訪箕子之歲也”(『考證』)라고 했으며, 王國維 역시 이 說을 지지했음(『觀堂學書記』).
	②“王有疾, 弗豫.”	“弗豫”는 『今文尙書』에 ‘不豫’라고 되어 있음. 古文에는 “不豫”, “不悆” 또는 “不忼”라고 되어 있음. 段玉裁는 ‘忼’가 곧 ‘悆’라고 했으며, ‘悆’은 壁中の 故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孔安國이 이를 今文으로 읽어서 ‘豫’자로 바꿨다고 함(『撰異』). 『釋詁』에서는 “豫, 安也.”라고 했는데, “弗豫”란 곧 몸이 불편하다는 뜻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몸에 병이 있어 “不舒服”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
	③“未可以戚我先王”	‘戚’은 일반적으로 ‘憂’로 많이 해석함(『詩經』「小明」 “自貽伊戚”毛傳). 이 말은 『毛公鼎』 “欲我弗作先王憂”와 동일하게, 옛 사람들이 祖先에 대하여 쓰던 상용어임. 그러나 여기서 ‘憂’의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語意가 아직 부족함. 戴鈞衡은 “竊謂此言僅卜未足以動我先王也.”라고 했으며, 『孟子』 “於我心有戚戚焉”의 ‘戚’자에 대한 趙岐注에서는 “‘戚戚然心有動也.’ 僅卜未可以感動先王, 故下文特爲壇壝, 先冊告而後用卜耳.”라고 했음. 즉 ‘憂’의 의미는 ‘心有動’의 의미로 확대되는데, 앞뒤 문장을 연결해 보면 이 해석이 비교적 타당함.
	④“敷佑四方, 用能定爾子孫于下地”	王國維, 楊筠如는 모두 “敷佑”的 音義가 “撫有”와 동일하다고 보았음. ‘敷’는 ‘溥’와 통하는데, 고대에 ‘溥’자는 ‘匍’와 한 글자로 사용되었음. 『孟鼎』에서는 “匍有四方”이라 했는데 이는 곧 “撫有四方”임(『觀堂學書記』, 『尙書覈詁』). 王國維의 說이 옳음. 『秦公鐘』의 “匍有四方”(『秦公盤』: “奄有四方”)과 1976년에 출토된 『牆盤』의 “匍有上下”로부터 “匍有”는 西周 이래로 주나라 사람들의 관용어임을 알 수 있음. 典籍 중에도 적혀 있는 “撫有”的 예로는 『左傳』「襄公十三年」의 “撫有蠻夷”, 「昭公元年」의 “撫有爾室”, 「昭公三年」의 “撫有晉國” 등이 있는데 모두 같은 뜻임. 즉 “敷佑”는 “匍有”, “撫有”와 同音 假借. 한편 ‘用’은 ‘因’, ‘由’의 의미를 표시하는 介詞로서 여기서는 ‘따라서’, ‘그리므로’ 등과 같은 뜻임.
	⑤“我之弗辟, 我無以告	‘之’는 여기서 假定의 접속사로 ‘만약’의 뜻임. “我之弗辟”은 “내가 만약 피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으로, 『史記』「魯世家」에서는 今

我先王。”	文에 따라서 ‘辟’을 ‘避’로 해석하여, 이 구절을 “我之所以弗辟而攝行政者”라고 풀었음. 한편 『偽孔傳』은 古文에 따라 ‘辟’을 ‘法’으로 읽어서 해당 구절을 “我不從法法三叔”이라고 해석했음. 今古文 각 과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과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설을 취함.
⑥“周公居東二年”	居東이란 ‘나라의 동쪽에 거한 것’(『蔡傳』). 즉 周公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國都를 떠나서 잠시 동쪽의 어느 변방 지역에 거주했다는 뜻임. 『尚書』『洛誥』의 “大相東土, 至于洛師”에서의 ‘東’은 鄭鎬의 동쪽에서 洛邑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을 가리킴. 『魯世家』는 “殺武庚, 誅管叔, 寧淮夷東土”를 “我之弗辟” 아래에 서술했고, 王肅注(『孔疏』引) 및 『偽孔傳』에서도 ‘居東’을 ‘東征’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모두 주공이 武庚과 管叔, 蔡叔 등에 대해 東征한 일과 본문을 억지로 끼워맞춘 것으로 잘못된 것임. 한편 牟庭의 『同文尚書』에서는 居東을 居廟이라고 했는데, 豊鎬의 동쪽에 있는 지역임. ‘廟’자는 또한 ‘邠’자이기도 한데, 古文에서는 형상이 ‘楚’자와 흡사하여, 隸古에서는 필히 ‘邠’을 ‘楚’로 잘못 적었을 것임. 牟의 說은 『詩』『廟風』과도 상응하여, 그 의미를 취할 수 있음.
⑦“則罪人斯得”	'罪人'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가리킴. '斯'는 連詞로서 '乃'와 의미가 같음(據『釋詞』. 偽孔釋爲'此', 『孔疏』引王肅釋爲'皆', 楊欽據鄭玄說釋爲'盡', 皆不確). 『蔡傳』에서는, "方流言之起, 成王未知罪人爲誰, 二年之後, 王始知流言之爲管、蔡."라고 했으며, 楊欽은, "按'罪人斯得'之文, 卽承'周公偏東二年'之後, 是周公得之, 而非成王得之也. 所謂得之者, 謂得流言之所自起也."(『平議』)라고 했음. 『詩·鴟鴞·正義』引鄭玄『尚書注』에서는, "罪人, 周公之屬黨, 與知居攝者. 周公出, 皆奔. 今二年, 盡爲成王所得. 謂之罪人, 史書成王意也."라고 하였다. 이는 정현이 『詩·鴟鴞』의 “既取我子, 無毀我室” 등의 구절에 잘못 근거하여 얻은 잘못된 해석으로, 당시 상황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
⑧“邦人大恐, 王與大夫盡弁”	『魯世家』에서는 “邦人大恐”을 “周國大恐”이라고 바꾸어 서술했으며, 『大傳』에서는 “國恐”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脫字된 듯함. “王與大夫盡弁”는 『魯世家』에서 “成王與大夫朝服”이라고 했으며, 따라서 『史記』에서는 ‘弁’을 ‘朝服’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서 서술했음. ‘弁’은 본래 고대 귀족들이 사용하던 鹿皮로 만든 모자를 말함(『呂氏春秋』『上農』注, 『儀禮』『覲禮』·『士冠禮』注 등). ‘弁’이란 곧 朝服을 대표하는 것임. ‘弁’을 ‘皮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문가의 說이며, 『偽孔傳』도 이를 따름. 한편 고문가인 鄭玄은 이를 ‘爵弁’이라 해석하고, “承天變降服”이라고 풀었음(『孔疏』引).
⑨“盡起	‘築’은 別本에서는 또한 ‘筑’이라고도 함(『釋文』). 馬融은, “築, 拾

	而築之”	也.”라고 했고(『釋文』引), 『孔疏』는 “鄭、王，皆云‘築，拾也.’”라고 했음. 按『爾雅』『釋言』: “築，拾也.” 『釋文』에 보이는 别本은 여러 古文家에 해당될 것임. 段玉裁는, “此好事者因馬、鄭、王皆云‘築，拾也’合於『爾雅』, 遂改從『爾雅』作‘築’. 不知『釋文』、『正義』(즉, 『孔疏』)未嘗言馬、鄭、王作‘築’也. ‘築’與‘掇’雙聲, 得訓拾. ‘築’、‘築’皆非正字, 未見‘築’是、‘築’非也.”(『撰異』)라고 했음. 馬融은 이 문장을 해석하기를, “禾爲木所偃者, 起其木, 拾其下, 乃無所失亡也.”(『魯世家集解』引)라고 했는데, 즉 “큰 나무에 의해 쓰러진 벼를 일으켜서 그 이삭을 수습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이해는 정확함. 『僞孔傳』 및 『孔疏』는 이 부분을 “木有偃拔, 起而立之, 築有其根.”라고 해석하여 큰 나무의 근본을 다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信古派	① 武 王 既 克 驁 (殷)三年	『今文尚書』에는 “既克商三年”이라 되어 있으며, 『魯世家』에도 역시 “克殷三年”이라고 되어 있음.
	② “王不 瘞(豫)又 (有)厃 (遲)”	清華簡 「保訓」에도 보임. ‘瘞’자는 『今文尚書』에서 ‘豫’자인데, ‘厃’자(『釋文』引或本), ‘悆’자(『說文』), 또는 “不懼”(『尚書』「顧命」)이라고 하기도 함. ‘懼’은 『僞孔傳』에서 ‘悅懼’으로 해석했음. ‘厃’는 『說文』의 ‘遲’자 또는 ‘追’자를 쓴았음. 『廣韻』에서는 이를 “久也.”라고 함.
	③ “未可 以感(戚) 虐(吾)先王”	‘戚’은 ‘憂慮’의 뜻으로, 이 구절은 “우리 先王들로 하여금 걱정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임. 鄭玄 역시 ‘感’자를 ‘憂’로 해석하면서 “未可憂怖我先王也.”라고 함. 鄭玄의 설이 비교적 옳음.
	④ “專 (溥)又 (有)四 方, 以奠 (定)定爾 (爾)子孫 于下墮 (地)”	『今文尚書』에는 “乃元孫不若旦多材多藝, 不能事鬼神”이라고 되어 있으며, “溥有四方”은 『今文尚書』에 “敷佑四方”이라 되어 있음. ‘溥有’란 ‘廣有’의 뜻으로, “溥有四方”이란 말은 『詩』「皇矣」의 “奄有四方”, 大孟鼎(『殷周金文集成』 2837)의 “匍有四方” 등에서도 똑같이 보임.
	⑤ “我之 □ □ □ □ 亡 以 復(復)見 於先王.”	제8간에는 4개의 缺字가 있는데 『今文尚書』에는 “弗辟我” 세 글자임. 『僞孔傳』, 許慎은 모두 ‘辟’자를 ‘法’으로 읽어서, “내가 만약 管叔을 법으로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先王을 다시 빨 면목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했음. 따라서 ‘居東’을 ‘東征’으로 이해함. 馬融, 鄭玄은 ‘辟’자를 ‘避’로 읽어서, 이를 “避居東都”라고 해석했음. 『魯世家』는, “我之所以弗辟而攝行政”이라고 해서 역시나 ‘避’

	로 읽었으며, “而攝行政”이라는 한 구절을 덧붙임. 『僞孔傳』, 許慎의 說이 비교적 옳음.
⑥ “周公石(宅)居東三年”	‘宅’은 ‘居’의 뜻으로, “居東三年”이란 주공이 東征하여 武庚, 管叔등의 반란을 평정했음을 의미함.
⑦ “禍(禍)人乃斯曼(得)”	‘禍(禍)人’이란 武庚, 管叔과 그 黨與들을 일컬으며, ‘斯’는 ‘그래서, 그리하여’, ‘곧[則]’의 뜻이고, ‘得’은 ‘獲得’의 의미임. 이 구절은 “반란을 일으켰던 그 무리들이 모두 잡히게 되었다”는 의미임.
⑧ “邦人□□□□覓(弁), 夫(大)夫綰(縗)”	제10간에는 4개의 缺字가 있음. 『今文尚書』에 따르면 “大恐, 王□.”이라고 보충 가능함. ‘弁’은 鄭玄注의 ‘爵弁’이라는 해석에 따라야 함. 『僞孔傳』에서는 ‘皮弁’이라고 보고, 매일 조정에서 입던 常服이라고 해석했음. 『魯世家』에서도 “朝服”이라고 하여 의미는 이와 같음. 『左傳』成公 5년에는 국가에 災異가 있어서, “君爲之不舉, 降服, 乘縗, 徹樂, 出次, 祝幣, 史辭以禮焉.”이라고 되어 있다. 降服이란 爵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鄭玄의 설이 비교적 옳음. 大夫縗은 아마도 『左傳』에서의 ‘乘縗(杜注: “車無文”)’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함.
⑨ “二公命邦人棗(盡)復(復)竺(筑)之”	‘筑’은 흙을 이용해서 기초를 다진다는 뜻임. 이 구절은 “큰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들을 召公과 姜太公이 國人們로 하여금 전부 일으켜 세우게 하고 흙을 이용해서 땅을 다지게 했다”는 의미임.

* 『考證』: 皮錫瑞 撰 『今文尚書考證』, 『撰異』: 段玉裁 撰 『古文尚書撰異』, 『釋詁』: 郭璞注, 邢昺疏 『爾雅釋詁』, 『覈詁』: 楊筠如 撰 『尚書覈詁』, 『蔡傳』: 蔡沈 撰 『書集傳』, 『孔疏』: 孔穎達 撰 『尚書正義』, 『釋詞』: 王引之 撰 『經傳釋詞』, 『平議』: 楊樹達 撰 『群經平議』, 『大傳』: 伏生 撰 『尚書大傳』, 『釋文』: 陸德明 撰 『經典釋文』.

참고문헌

1. 史料

古代史 관련 사료

- 莊子 저, 김학주 역, 『장자(상)』, 을유문화사, 2005.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中西書局, 2010.
孔安國 傳·孔穎達 正義, 『十三經注疏 尚書正義』, 上海古籍出版社, 2019.

顧頡剛 관련 사료

- 陳獨秀, 「吾人最後之覺悟」, 『青年』 第1卷 第6期, 1916.
吳虞, 「家族制度爲專制主義之根據論」, 『新青年』 第2卷 第6期, 1917.
_____, 「吃人與禮教」『新青年』 第6卷 第6期, 1919.
梅光迪, 「評今人提倡學術之方法」, 『學衡』 第2期, 1922.
張君勵, 「科學與人生觀」, 『科學與人生觀』, 亞東圖書館, 1923.
顧頡剛, 「我們對於國故應取的態度」, 『小說月報』 第14卷 第1期, 1923.
_____, 「一九二六年始刊詞」, 『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周刊』 第2卷 第13期, 1926.
_____, 「顧序」, 『國立中山大學語言歷史學研究所周刊』 卷六 六二-六四期合訂本, 1929.
_____, 「發刊詞」, 『禹貢』 第1卷-第7卷, 1934~1937(『禹貢』 창간호부터 4卷 12期까지는 顧頡剛과 譚其驥이 主編을 맡았고 5卷 1期부터는 顧頡剛과 馮家昇이 主編을 맡았다. 본문에서 『禹貢』 잡지를 표시할 때는 '『禹貢』 4-12, 1936'식으로 약칭함.)
_____, 「北京大學國學門週刊發刊詞」, 趙家璧 主編, 阿英 編選, 『中國新文學大系』 第10集, 上海良友圖書印刷公司, 1936.
_____, 「我的事業苦悶」, 『觀察』 第3卷 第24期, 1948.
_____, 「禹貢學會研究邊疆計劃書」, 『史學史研究』 1, 1981.
_____, 『論巴蜀與中原的關係』, 四川人民出版社, 1981.

- _____ 編著, 『古史辨』第1冊, 『民國叢書』第4編, 上海書店, 1992(이하
史料로 활용한 『古史辨』은 모두 上海書店, 1992년 影印本.)
- 『古史辨』第2冊
『古史辨』第4冊
『古史辨』第6冊
『古史辨』第7冊
- _____, 「編中國歷史之中心問題」, 顧洪 編, 『學術文化隨筆—顧頡剛』, 中
國青年出版社, 1998.
- _____, 「蕃姓與漢姓」, 顧洪 編, 『學術文化隨筆—顧頡剛』, 中國青年出版
社, 1998.
- _____, 『秦漢的方士與儒生』, 上海古籍出版社, 2005.
- _____, 著, 김병준 譯, 『고사변 자서: 의고학파의 거두 고힐강의 자전적
서문』, 소명출판, 2006.
- _____, 『顧頡剛日記』(全12冊), 臺灣聯經出版公司, 2007.
- _____, 「答柳翼謀先生」, 『顧頡剛古史論文集』卷1, 中華書局, 2011.
- _____, 『孟姜女故事研究及其他』, 商務印書館, 2014.
- 陸懋德, 「尚書堯典篇時代之研究」, 『學衡』第43期, 1925.
- 李石岑, 『李石岑講演集』, 商務印書館, 1929.
- 章士釗, 「評新文學運動」, 張若英 編, 『中國新文學運動史資料』, 光明書店,
1934.
- 顧潮 編著, 『顧頡剛年譜』,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 顧潮·顧洪 編校, 『中國現代學術經典: 顧頡剛卷』, 河北教育出版社, 1996.
- 胡適 著, 曹伯言 整理, 『胡適日記全編』5, 安徽教育出版社, 2001.
- 傅斯年, 「致顧頡剛書」(1938), 『傅斯年全集』第7卷, 湖南教育出版社, 2003.
- _____, 「致朱家驛、杭立武書」(1939), 『傅斯年全集』第7卷, 湖南教育出版
社, 2003.
- 顧頡剛·劉起釤, 『尚書校釋譯論』, 中華書局, 2005.
- 顧頡剛·楊向奎, 「三皇考」, 『顧頡剛古史論文集』卷2, 中華書局, 2011.
- 顧頡剛·王重麟 共編,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上冊, 『顧頡剛古史論文集』
卷2, 中華書局, 2011.
- 劉撲藜, 「讀顧頡剛君“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的疑問」, 『顧頡剛古史論文集
』卷1, 中華書局, 2011.
- 柳詒徵, 「論以說文證史必先知說文之誼例」, 『顧頡剛古史論文集』卷1, 中
華書局, 2011.
- 顧頡剛·史念海, 『中國疆域沿革史』「緒論」, 商務印書館, 2015.

2. 연구서

- 岳南 著, 심규호·유소영 譯, 『천년의 학술현안』 2, 일빛, 2003.
- 李澤厚 著, 김형종 譯, 『중국현대사상사론(中國現代思想史論)』, 한울, 2005.
- 장문석, 『민족주의』, 책세상, 2011.
- 전인갑, 『현대중국의 제국몽: 중화의 재보편화 100년의 실험』, 學古房, 2016.
- 李學勤, 『走出疑古時代』, 長春出版社, 2007.
- _____, 「由清華簡「金縢」看周初史事」, 『初識清華簡』, 中西書局, 2013.
- 劉光勝,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整理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16.
- 劉國忠, 『走近清華簡』, 高等教育出版社, 2011.
- 劉俐娜, 『顧頡剛學術思想評傳』, 北京圖書館出版社, 1999.
- 劉起釤, 『顧領剛先生學術』, 中華書局, 1986.
- 呂振羽, 『史前期中國社會研究』, 北平人文書店, 1934.
- 錢小伯 編, 『顧頡剛民俗學論集』, 上海文藝出版社, 1998.
- 史念海, 『中國歷史地理論叢』「序」, 陝西人民出版社, 1984.
- 童丕繩, 「評『史前期中國社會研究』」, 圖書展望, 1937.
- 王汎森, 『古史辨運動的興起: 一個思想史的分析』, 允晨文化出版公司, 1987.
- 王煦華 主編, 『顧頡剛先生學行錄』, 中華書局, 2006.
- 許冠三, 『新史學九十年』, 中文大學出版社, 1986.
- 徐旭生, 『中國古史的傳說時代』(修訂本), 文物出版社, 1985.
- 余英時, 『史學與傳統』, 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2.
- _____, 『未盡的才情: 從‘日記’看顧頡剛的內心世界』,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2007.
- 小澤賢二, 「清華簡『尚書』文體考」, 淺野裕一·小澤賢二 著, 『出土文獻から見た古史と儒家經典』, 汲古書院, 2012.
- Schneider, Lauence A., *Ku Chieh-Kang and China's New History: Nationalism and the Quest for Alternative Tradi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Snyder, Louis L., *Encyclopedia of Nationalism*, New York: Paragon House, 1990.

Tamir, Yeal, *Why Nation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3. 연구논문

김병준, 「고힐강의 삶과 학문세계」,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학 융합사업단 편,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삶과 학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김창규, 「傅斯年의 민족문제 이해와 ‘東北’ 인식」, 『역사학보』 193, 2007.

박장배, 「1930년대 顧頡剛의 역사지리 인식과 변경학 연구」, 『中國近現代史研究』 76, 2017.

장영권, 「顧頡剛의 學術 專門化 摸索과 1920年代 中國 知識人社會」, 西江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2.

장호영, 『戰國時代 楚簡 속 논의에 나타나는 군신관계의 다양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정요근, 「청산되어야 할 적폐: 국수주의 유사 역사학」, 『역사와 현실』 105, 2017.

하주형, 「학술과 救國의 사이: 民國 시기 顧頡剛의 ‘學術救國’ 인식과 中華民族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程鵬宇, 「顧頡剛與唯物史觀派學者在古史觀上的分歧」, 『雲夢學刊』 38-1, 2017.

程元敏, 「清華楚簡本『尚書·金縢篇』評判」, 『傳統中國研究集刊』 9-10, 上海人民出版社, 2012.

丁則良, 「對胡適的疑古論的批判」, 『東北人民大學人文科學學報』 1, 1955.

李得賢, 「顧頡剛先生與西北」, 『青海社會科學』 3, 1982.

李學勤, 「再證傳世『尚書』確系僞本」, 『清華大學新聞網』, 2013.

_____, 「清華簡九篇綜述」, 『文物』 5, 2010.

廖名春, 「出土文獻與中國文學研究筆談」, 『中州學刊』 2, 2000.

_____, 「試論古史辨運動興起的思想來源」, 陳其泰·張京華 主編, 『古史辨學說評價討論集』, 京華出版社, 2001.

林沄, 「真該走出疑古時代嗎?: 對當前中國古典學取向的看法」, 『史學集刊』 3, 2007.

劉國忠, 「從清華簡「金縢」看傳世本「金縢」的文本問題」, 『清華大學學報』 4,

2011.

劉俐娜，「從‘上游集’看抗戰時期顧頡剛的學術活動及思想」，《抗日戰爭研究》3, 2006.

劉起釤，「顧頡剛先生與『尚書』研究」，《社會科學論線》3, 1984.

劉緯毅，「歷史不會忘記——顧頡剛先生創辦的禹貢學會和禹貢半月刊」，《滄桑》3, 2002.

呂廟軍·李學勤，「重寫中國學術史何以可能？：關於“出土文獻與古史重建”問題的對話」，《歷史教學問題》4, 2015.

馬大正，「略論禹貢學會的學術組織工作」，《中國邊疆史地研究》1, 1992.

馬竹君，「顧頡剛“層累說”的再審視：以大禹傳說研究為中心」，《民俗研究》3, 2018.

史念海，「顧頡剛先生與禹貢學會」，《中國歷史地理論叢》3, 1993.

宋健，「超越疑古 走出迷茫」，《河北師範大學學報》4, 1996.

孫喆，「〈禹貢〉半月刊與20世紀三四十年代的中國邊疆研究」，《中州學刊》4, 2012.

孫喆·王江，「時代變局下知識分子對“致知”與“致用”的探索：從顧頡剛創辦『禹貢』半月刊談起」，《中國邊疆史地研究》19-2, 2009.

汪受寬，「以救國自任的顧頡剛甘肅之行」，《西北史地》1, 1994.

吳豐培，「顧頡剛先生和所著‘西北考察日記’」，《西北史地》4, 1983.

_____, 「憶〈禹貢〉及其復刊鱗爪」，《中國邊疆史地》1, 1988.

吳銳，「“禹是一條蟲”再研究」，《文史哲》6, 2007.

夏商周斷代工程專家組，「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世界圖書出版公司，2000.

徐彬，「“疑古”和“考信”的史學大師顧頡剛」，《歷史教學》11, 1999.

徐象平，「『禹貢半月刊』的編輯特色」，《陝西師大學報》24, 1995.

徐莊，「〈禹貢半月刊〉編輯思想之研究」，《寧夏社會科學》6, 1992.

許子豪，「禹貢學會與『禹貢』半月刊在歷史地理學史中地位塑造的研究」，雲南大學 碩士學位論文，2020.

朱鳳瀚，「樊公簋銘文初釋」，《中國歷史文物》6, 2002.

小倉芳彥，「顧頡剛と日本」，《理想》464號, 1972.

_____, 「抗日戦下の顧頡剛—『西北考察日記』を手にして」，《思想》681號, 1981.

_____, 「通俗讀物編刊社の出版物—1930年代の抗日パンフレット11種」，《調査研究報告》17, 1983.

竹元規人,「顧頡剛の尙書研究(1)」,『福岡教育大學紀要』65, 2016.

Michael Gasster, "Book Review: Modern China's Search for a Political Form by Jack Gra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29, No.2

中文摘要

顾颉刚的‘救国’与其古史研究

洪恩惠

东洋史学科

首尔大学校大学院

众所周知，顾颉刚是20世纪中国疑古学派的代表人物。然而，对于顾颉刚这个人物，无论是在一般的认识上，还是在现有研究中，都常有所误解。到目前为止，对顾颉刚的研究大多或只以从事中国古代史领域研究的历史学家顾颉刚的学术研究本身为对象，或从近现代史视角将顾颉刚作为五四运动时期活动的知识分子之一的活动内容当作对象。但是，将顾颉刚视为“纯粹学者”的一方在强调他是疑古学派的巨头的同时，也曾批判他是“卖国奴”。另一方面，与将其视作“纯粹学者”的评价截然相反，对于顾颉刚的现实参与，也有人批评他是“民族主义者”。但是将一生中大部分时间都用于古代史研究的顾颉刚和作为生活在“国亡”时期的知识分子致力于现实参与的顾颉刚，这两种形象真的可以被分开来看待吗？基于这种问题意识，与既有研究中经常将两种形象视作断绝的两面不同，本文以顾颉刚古史研究的具体分析为中心，试图考察顾颉刚的现实参与及其古史研究之间的关联性。

顾颉刚作为“纯粹学者”的形象，一直以来广为人知。但是，顾颉刚也绝非脱离现实，而只埋头于学问的人。从20世纪20年代到30~40年代，顾颉刚作为知识分子一直抱有对参与现实的政治意识。特别是在民族危机加剧的时期，还为“救国”做出了具体的行动。但这里的“救国”并非指政治活动，而是指学术活动。到目前为止，仅以他使用“救国”一词为由，而径直将其视为政治人物。但实际上，通过考察《顾颉刚日记》等资料中顾颉刚发言的结果，发现对于顾颉刚来说，“救国”即是指学术活动。如果说顾颉刚的“救国”活动

就是他的学术活动，那么顾颉刚的学术研究又是如何能与“救国”的活动直接连接起来的呢？顾颉刚认为，以理性的力量，即启蒙为手段，可以救济受非理性支配的当时的中国。对于顾颉刚而言，通过对理性的追求扩大启蒙便是“救国”。

接着，在本文将常被视作区分20世纪20年代和30~40年代顾颉刚变化的主要转折点的《禹贡》杂志作为第一个事例，分析了其实际内容。因认为编辑《禹贡》杂志是最能体现顾颉刚现实参与的事例，顾颉刚受到了“民族主义者”的批评。但是，尽管是因感到“救国”的必要性而创刊了《禹贡》，但以实证与考证为主的倾向在《禹贡》杂志中也被原封不动地体现了出来。另外，顾颉刚编纂的《现代初中教科书本国史》也作为顾颉刚出版大众书籍而不是学术书籍的事例，成为批判他是“民族主义者”的主要依据之一。但是顾颉刚始终认为，重要的是明确知道过去并非一个中国的历史事实，且有必要对他生活的当时的中国与过去事实两者之间做彻底的区分。这种学术信念最终导致了将三皇五帝规定为中国的“传说”时代的，与以往的教科书不同的叙述。因这与当时想将三皇五帝作为民族团结口号的南京国民政府的立场发生冲突，导致顾颉刚编纂的教科书被全面禁止出版。此外，与顾颉刚同样被视作为“纯粹学者”的傅斯年在面临日本侵略这一民族危机时最终迎合政治不同，顾颉刚否定了中国民族的同一起源说，主张历史上中国疆域的流动性，坚持了自己的学术立场。像这样，我们很难将顾颉刚单纯的理解为“爱国主义”或“民族主义”的人物。他坚信唯有站在正确事实的基础上才是“救国”的正确方法。

其次，本文将能突出呈现顾颉刚“纯粹学者”形象的《尚书》研究作为第二个事例进行了分析。《尚书》是顾颉刚从1920年代到其晚年持续钻研的研究对象，是顾颉刚为打破中国古代经典的权威，展现上古时代的真相而选择的重要史料，因此其《尚书》研究具有重要意义。但是，对顾颉刚和他的研究的批评从其1926年编纂《古史辨》时的第一次批判，到1950年代批评胡适的时期，还有1990年代以后“信古派”的批评，共有三次。虽然这三次批判的时间各不相同，但在批评顾颉刚是“反民族主义者”这一点上却是一样的。然而对顾颉刚的批判和误解并未就此结束，最近还被“信古派”误解为“疑古派”。

为具体考察“疑古派”和“信古派”两者分别如何看待和解释《尚书》，本文主要分析了包含从西周时期开始的历史记录的《尚书·周书》篇，特别是其中与清华简《今文尚书》中部分内容相同的《金縢》篇。顾颉刚的“疑古派”和李

学勤的“信古派”得出的结论虽在认为《金縢》篇是史上值得信赖的记录这一点上相同，但两者使用的论据却不同。但“信古派”的主张却存在一些问题，首先认为“疑古派”直接否定了《伪孔传》等古书的主张并非事实，并且因当时作为出土文献的简牍资料也只是另一种“册”这一点上，存在编纂和流通过程中的复杂性问题。

最终，正如通过对《尚书》的两派解释所直接体现的那样，“疑古派”和“信古派”的争论只是被某种政治意图和目的下形成的“阵营逻辑”掩盖了论点的本质，而在两者使用的方法上实际上并无区别。结果，通过对顾颉刚的《禹贡》编辑和《尚书》研究的具体分析，可以发现顾颉刚的古史研究与其“救国”两者之间是密切相关的。进一步说明，因出土文献的泛滥，“信古派”逐渐占上风的当今中国史学界的趋势下，顾颉刚的“疑古”的方法依然未错。

keywords : 顾颉刚，救国，《禹贡》，《尚书》，疑古，信古

Student Number : 2019-22938